

머리말

중국의 서부대개발이 금년으로 시작된 지 5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진척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기업의 보다 체계적인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이해와 진출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중국 서부지역은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정책 시행 발표 이래 지난 5년간 10%가 넘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었으며,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경제벨트와 인프라망 구축이 착실히 이루어져 왔고, 대규모 프로젝트인 서기동수(西氣東輸), 서전동송(西電東送)의 추진을 통해 중국의 전력, 개스 등 자원 공급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수 시장으로 부상하여 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외국 거대기업들이 서부지역으로 향한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기업에게도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서부대개발(서부지역 경제)이 한국경제(기업)에게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일까?

지난 92년 한-중 수교이래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최대 수출시장, 최대 투자 진출 대상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중국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한국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은 중국에서도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상해, 청도, 천진, 대련 등 동부연해 지역에 국한되어 왔었으며, 서부지역과 우리와의 연계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부지역은 그동안 긴 물류 동선(고물류비용), 낙후된 인프라, 낮은 국민소득과 소비수준, 낮은 사회개방도, 폐쇄적 내수시장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나 우리기업에게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정치경제적인 이유와 현실적으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는 절박성 속에서 지난 2000년부터 50년 기간의 서부대개발 정책

을 추진하고,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투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제한을 없애면서, 외국기업의 내수시장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내륙지역에서도 국제거래에 대한 인지도와 적극성이 제고되면서 우리기업에게 서부지역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부시장의 문호개방은 우선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중국정부가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동 지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과 WTO가입에 따른 내수시장 개방화 추세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민소득 2,000-3,000달러대에 포진한 성도, 중경, 서안, 곤명, 란주 등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만 계산해도 현실적으로 3,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소비시장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인프라건설, 환경보호산업 분야, 산업시설 및 상가 건설 등 우리의 경쟁력 있는 분야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동안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현지의 풍부한 자원개발이 더디었으나 이제는 주요 간선들에 대한 고급도로망이나 철로망에 대한 공사가 속속 이루어지고, 삼협댐 공사가 1기 공사를 끝내고 2 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양자강을 통한 물류망이 대폭 확대되는 상황이며, 정책적으로 자원개발에 대한 우대가 주어지고 있어 현지 진출이 그만큼 쉬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로서는 자원개발수입 차원에서도 서부지역의 의미를 짚어 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개척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서부지역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시장 선점을 위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서부지역은 지금 현재로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장 진입 출발선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기업의 진출여지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비록 간략하긴 하지만 서부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동 지역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에게 가이드적인 성격의 자료를 제공코자 본 기획조사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표적인 중국사이트인 코트라 차이나(www.kotrachina.org)의 서부

대개발란에 지난 3년간 필자가 게재해 왔던 자료들과 최신의 자료들을 근간으로(www.cei.gov.cn, www.developwest.gov.cn 등등) 본 자료를 작성하여 보았다. 그러나, 중국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단편위주의 무체계적인 자료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워낙 방대한 지역에서 매년 1,0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제약이 있어, 본 자료가 핵심을 찾지 못하고 겹테기만을 그려낸 감이 짙음을 먼저 고백하고 독자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비록 본 자료가 간략한 책자 형태의 보고서이지만 중국서부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는 기업들에게 (또한 서부를 전혀 모르는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으며, 추후 보다 체계적으로 서부 전체를 다루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자료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의 말로 모두의 말을 대신한다.

2004.12

중국담당 광복선

자료요약

◎서부대개발정책

- 추진배경:동서지역간의 경제불균형 발전에 따른 문제점(소득격차 확대 등) 해결 필요성 대두
- 추진기간:2000년부터 50년간 (초기 5년간 사회기초시설분야 구축)
- 대상지역:중경직할시(重慶市),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貴州省), 운남성(雲南省), 서장자치구(西藏), 섬서성(陝西省), 감숙성(甘肅省),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청해성(青海省), 신강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 개발전략: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생태환경 건설 주력
.맹목적 자원개발 배제 -->환경 친화적 개발
.생산능력확대 및 경쟁우위 산업-->첨단산업 육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
- 주관부서:국무원서부개발영도소조판공실 및 각 지방정부 관련 부처
- 재원조달:정부예산, 국채발행, 중국내국기업 참여, 외자유치, 차관 등
- 우대정책: 동부지역보다 외국인투자, 광산자원개발, 서비스산업 분야 등에 보다 많은 내용의 우대정책 실시

◎서부지역 경제규모

- 면적: 중국 전체 면적의 70.5%(676.6 만km²)
- 인구(2002기준): 중국 전체의 28.6%(36,691만명)
- GDP(2003기준): 중국 전체의 19.6%(22,833억 위안(약 2,764억 달러))

-사회고정자산투자(2003기준): 중국 전체의 17.4%(9,593억 위안)

-대외무역(2003기준):중국 전체의 3.52%(300억 달러)

◎서부대개발정책 초기단계 평가(2000-2003년간)

▶초기성과

-경제규모(GDP 기준):1.5배 확대(정책실시이전 1999년 대비)

-주요프로젝트:서기동수(서기동수) 동부라인 완공, 서전동송(서전동송)남부 송전망 완공, 서장-청해철로 95% 완공 등 순조로운 진행

▶문제점:절대적인 경제규모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동서지역간 소득 격차 확대 및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확대

◎서부대개발정책 2기 발전방향

-중국의 11차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06-2010)과 병행하여 각 성시별로 제 2 기 주요 프로젝트 준비 중

-도시중심의 경제벨트 구성: 서부지역에 8대 경제 벨트 형성, 45개 중점도시 중심으로 발전시킴.

◎서부지역과 한국과의 관계

-대서부지역 투자: 131건, 2억 달러('04.10월말기준) 불과. 우리나라 대중 총투자에서 각각 1.2%, 2.1% 점유.

-대서부지역 교역:'03년 17억 5천만 달러. 대중 총교역액 중 2.77%

-주요교역 품목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서부대개발 정책 추진이 초기 5년간 사회기초시설(SOC)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에 따라, 관련 분야 제품의 수출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석유화학원료, 아스팔트, 건설중장비,기계류 등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 각 성시의 특색상품(비단, 담배, 토마토 페이스트 등)과 자원성 광산물(몰리브덴, 규소, 인, 산화안티몬, 탄산바륨,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망간, 알루미늄의 껍, 연의 껍, 아연의 껍,망간과 그 제품, 유연탄 등)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음.

◎우리기업의 서부개발 참여 방향

-지역선정:사천(四川), 중경(重慶), 섬서(陝西) 지역이 비교적 유리한 시장 환경과 사회환경을 갖춘 지역임.

-진출유망(가능)분야:환경보호산업분야, 전기전력 기자재 및 부품, 전자재, 건설중장비, 농기계분야, 한류와 연계시킨 소비제품, IT제품, 통신설비 등

-투자진출: 수출형 가공무역 제조업의 진출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바, 내수진출형 투자 합리적

-진출전략(사회간접자본, 환경보호산업, 자원개발분야)

.현지기업과 합자합작

.기술협력 또는 기술판매

.정부차관 공여와 연계된 기업진출

.중국정부의 관련 분야 투자확대 활용 참여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차관공여 활용

.한국환경보호기술 및 설비 전시회 개최(또는 참여)

.환경보호산업 분야 시장개척단 활동 증가

.적정 대리상 물색을 통한 기술력있는 소형설비 제품 판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BOT방식 진출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진출 거점으로 활용

목 차

I. 서부대개발

1. 개황

가. 추진배경

나. 경제권역구분

다. 권역별 자원우위분야 및 기본적 발전방향

라. 서부지역 경제규모

2. 서부대개발 추진 방향

3. 정책추진골격

가. 개발전략

나. 행정부서

다. 재원조달 기본 방향

라. 서부대개발 주요 지침

마. 외국인투자기업관련 세수 우대사항

4. 서부대개발 초기성과 및 전망

가. 초기성과

1) 경제지표로 본 변화

2) 부문별 성과

나. 문제점과 향후전망

1) 문제점

2) 향후전망(발전방향)

II. 서부지역과 한국과의 관계

1.한국의 대서부지역 투자동향

2.한국의 대서부지역 교역동향

가.한-중 교역에서 서부지역이 차지하는 위치

나.서부 각 지역과의 교역현황

다.서부지역과의 교역품목

1)한국의 대서부 주요 수출 품목

2)한국의 대서부 주요 수입 품목

3)서부 각 지역별 대한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

III.우리기업의 서부개발 참여 방향

1.우리기업 진출 가능 분야와 지역

가.지역선정

나.진출유망(가능)분야

나.투자진출

2.서부지역 진출 전략

가. 사회간접자본 분야

나.자원개발 분야

다.환경산업 및 생태환경 분야

라.농업, 목축업 및 임업(장강 및 황하 중상류 지역) 분야 협력

마.지역 특성에 맞는 제조업 투자 진출

바.중앙아시아·동남아 진출 거점으로 활용→신 실크로드 활용

[별첨]서부 각 성시자치구와의 주요 교역 품목

I.서부대개발

1.개황

가.추진배경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점(点)-선(線)-면(面)의 기본적인 경제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왔음.(주:일정 지역을 발전 시키고(점), 이들간 연결을 시키고(선),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면)는 중국의 기본적인 경제 발전 전략). 또한 지역 불균형 발전 전략을 구사 경제발전 여건이 비교적 유리한 연해지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를 먼저 일으키고 나서, 이의 성과를 인근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20여 년 간 구사해오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속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경제는 악화되는 환경문제와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 심화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간 갈등의 심화를 불러왔음.

중국의 지역간 불균형은 개혁개방 이래 날이 갈수록 벌어져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동-중-서부지역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개혁개방을 막 시작하려던 78년의 경우 동-중-서부지역간 국내총생산 비율이 1.9:1.3:1이었으나 20년이 지난 99년에는 2.4:1.3:1로 오히려 그 격차가 벌어졌음.

동-중-서부 지역 GDP 상대비교

구분	동부	중부	서부
1978	1.9	1.3	1
1995	2.3	1.3	1
1999	2.4	1.3	1

이에 따라 2000년부터 중국정부는 동남부 연해지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더 이상 서부내륙을 낙후된 상태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50년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국가발전 계획인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음. 서부대개발 정책은 동-서간의 격차는 물론 도-농간의 지나친 경제불균형이 중국의 정치체제에 상당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안정적 차원에서 추진된 면도 가지고 있음. 즉,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정책은 경제적인 이유와 체제안정이라는 사회정치적인 이유가 그 근저에 같이 깔려있음.

나.경제권역구분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리적, 경제적인 잣대로 여러 가지 경제권역 구분법을 가지고 중국을 나누어왔음. 화북(華北), 화동(華東), 화남(華南)으로 대별하는 구분법이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며, 근년에는 경제정책적인 차원에서 8 대 지역으로 나누어 경제권역을 구분하여왔음.

- 1)동북구역:요녕(遼寧),길림(吉林),흑룡강(黑龍江)
- 2)북부연해지역:북경(北京),천진(天津),하북(河北),산둥(山東)
- 3)동부연해지역:상해(上海),강소(江蘇),절강(浙江)
- 4)남부연해지역:복건(福建),광둥(廣東),해남(海南)
- 5)황하중류지역:섬서(陝西),산서(山西),하남(河南),내몽고(內蒙古)
- 6)장강중류지역:호북(湖北),호남(湖南),강서(江西),안휘(安徽)
- 7)서남지역:운남(雲南),귀주(貴州),사천(四川),중경(重慶),광서(廣西)
- 8)대서북지역:감숙(甘肅),청해(青海),닝하(寧夏),서장(西藏),신강(新疆)

그러나 서부대개발에서 이야기하는 서부의 개념은 위의 권역구분과는 확연히 다름. 중국정부가 구분 하고 있는 동부, 중부, 서부의 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중국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각 권역별 자원 및 산업분포, 기본적인 발전 방향은 아래와 같음.

<동-중-서부 권역 구분>

구분	지역
동부	북경,천진,하북,요녕,상해,강소,절강,복건,산둥,광둥,해남
중부	산서,길림,흑룡강,안휘,강서,하남,호북,호남
서부	중경,사천,귀주,운남,서장,섬서,감숙,청해,닝하,신강,광서,내몽고

주)서부대개발정책에서는 전통적인 동-중-서부 구분에서 벗어나 내몽고와 광서 지방을 서부지역에 편입시켰음

다.권역별 자원우위분야 및 기본적 발전방향

◆동부지역◆

지역	자연자원 우위분야	산업기초(우위)분야
북경(北京)	석탄,철광,건축재료	화학,기계전자,교통운수설비제조, 철야금, 방직업
천진(天津)	석유, 천연가스, 소금(海鹽), 석탄, 금, 동, 니켈	기계, 방직, 화학, 야금, 식품, 석유
하북(河北)	석탄, 철광, 비금속광, 경작가능토지	석탄채굴, 석탄세광(洗鑛), 금속, 비금속광 채광 선광
요녕(遼寧)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금속, 비철금속, 비금속, 비금속광	철금속 채광,선광,정련. 석유,천연가스 채굴. 기계제조
상해(上海)	양자강 입구에 위치, 교통편리, 중국의 옛 공업기지, 최대공업도시	철강, 화학,기계, 선박, 방직, 경공업, 가전, 일용소비품
강소(江蘇)	석탄, 금속광, 수자원, 긴해안선, 석유, 천연가스, 소금	기계, 철강, 석탄채광, 전력, 방직, 경공, 가전
절강(浙江)	농부산물 자원 풍부, 해산, 어업자원 조건 우세, 관광자원	가공업이 전 공업의 90% 점유, 방직, 식품, 가전, 기계
복건(福建)	광활한 해역, 수산풍부, 수자원풍부, 삼림, 노동력	가공업, 계측기기공업, 가전, 제지, 전자
산둥(山東)	석유, 천연가스, 석탄, 소금(海鹽), 황금, 무기(無機)광,면,마, 모, 과일, 육류, 수산물	석유천연가스채굴,석탄채광,염업,수산업,방직,기계,식품,전자재
광둥(廣東)	긴 해안선, 넓은 면적의 해역, 편리한 교통, 홍콩과 마카오 인접 무역발달, 어업발달, 종식(種植)업자원조건 양호	가공제조업, 방직복장, 전자, 식품, 농부산물 생산, 어업, 제당

◆중부지역◆

지역	자연자원 우위분야	산업기초(우위)분야
산서(山西)	석탄매장량 1위, 철광, 보크사이트광, 비금속광	석탄채광, 금속제련, 기계, 식품가공, 건축건설
길림(吉林)	삼림, 석탄, 비철금속광, 야생동식물	자동차제조, 삼림경영 및 채벌, 목재가공, 제지, 전력
흑룡강(黑龍江)	석유, 석탄, 삼림, 경작가능토지	석유채굴, 삼림벌채 및 경영, 농업, 기계전기공업, 석유화학공업
안휘(安徽)	석탄, 철광석, 비금속광, 농부산자원	채광 및 정련, 철강제련, 기계, 화학비료, 전자
강서(江西)	석탄,보크사이트광,소금,철, 동, 황금, 유산나트륨, 황철광, 대리석	석탄, 야금, 전력, 화학, 전자, 방직
하남(河南)	석탄, 보크사이트광, 천연가스, 황금, 비금속광, 농부산물	석탄, 유색금속 제련, 전자재, 식품공업, 기계
호북(湖北)	인광석 매장량 제 1 위, 철금속광, 비철금속광, 수자원 풍부	자동차, 철강, 제련, 수력발전, 화학, 방직
호남(湖南)	철광, 비철금속광,석탄,비금속광 풍부, 관광자원 풍부, 수자원 풍부	석탄채광 및 선광, 철강, 제련, 비철금속, 채광 제련기계제조, 식품,방직, 석유화학

◆서부지역◆

지역	자연자원 우위분야	산업기초(우위)분야
사천(四川), 중경(重慶)	광산자원(바륨, 티타늄, 리튬, 석영, 유산나트륨, 요오드, 황, 인, 흑연, 아연, 염, 석면 등) 및 생물자원 풍부, 노동력 풍부	경제총량면에서 전국 상위, 농업, 목축업, 천연가스개발, 화학비료생산, 실크, 계측기기, 식용식물유 생산 능력 강함. 371개 과학연구기관, 54만 과학연구인원, 공업설비, 기술수준 전국 상위. 인구최대 지역
귀주(貴州)	수력자원 풍부, 석탄, 알루미늄, 인, 안티몬, 망간, 수은, 요오드 매장량 풍부	기계제조업, 철금속 및 비철금속, 계측기기공업 및 전자재공업 기초, 알루미늄 생산량 전국 상위
운남(雲南)	열대작물, 인광석 매장량 전국 1위, 규회석광 세계최대, 흑연, 아연매장량 전국 1위, 주석, 동, 보크사이트, 하석(nephelinite), 황금 풍부	담배생산량 800만단(주: 1단-50kg), 궤연 300만박스(전국1위), 차, 당(糖), 고무 생산량 많음. 비철금속 채광선풍제련.
섬서(陝西)	석탄저장량 최대, 석유, 철금속, 비철금속, 비금속광 고루 분포, 생물자원, 관광자원 풍부	석탄채광, 석유채굴, 철강제련, 화공원료, 기계제조, 전기공업, 방직, 염색, 경공업, 가전
감숙(甘肅)	비철금속, 철금속, 비금속광 매장 풍부. 석탄, 석유, 수력자원. 생물, 관광자원 풍부	야금공업, 비철금속공업 전국 상위. 석유화학, 석유기계, 국방산업, 모방(毛紡), 전자재, 전력, 식품공업의 기초
내몽고(內蒙古)	석탄, 임업, 철광, 소금, 석면, 운모, 석목	석탄, 전력, 임업 및 관련 설비, 야금, 기계, 목축가공업, 전자, 화학, 기계
광서(廣西)	열대작물 우세, 수력자원 풍부, 비철금속(30종: 주석, 안티몬, 텅스텐, 보크사이트 등 매장량 풍부), 전자재, 비금속광, 관광자원	식품가공, 전력, 비철금속 채광 및 정련, 전자재업, 관광
신강(新疆)	광활한 면적(160만km ²),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 자원 풍부, 관광자원 풍부	석유, 천연가스 채굴, 석탄채광, 정유, 화학, 농목축업
청해(青海)	수력자원 풍부, 염호(鹽湖) 저장량 전국 1위, 광활한 초원 보유	수력발전, 석유채굴, 야금, 기계공업 기초 형성, 건축업, 염호 개발 채굴업
영하(寧夏)	석탄 매장량 전국 5위, 수력자원 풍부, 비금속광 및 농부산물, 특산물 풍부	석탄개발, 채광, 발전. 비철금속 야금제련, 화학, 기계 부분 기초형성
서장(西藏)	넓은지역, 초원 과 삼림이 많으며 임산자원 및 목재 많음. 수력자원, 고원생물자원. 크롬, 리튬, 붕사 매장량 1위	고원농목업, 보리, 민족공예품제작

◆지역별 기본 발전 방향◆

[동부지역]

- 기술위주발전.
- 자원의존도가 비교적 적은 지식, 기술집약형 산업 발전노력.
- 원재료 소모량이 많고 운송량이 많은 기업의 발전 제한 및 동 기업들의 내지 이전
- 동부지역의 지리적 유리점 과 기술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경제창구 및 기타

지역에 대한발전 전위지역으로의 작용 발휘

-적극적으로 외자를 활용 외향형 경제 발전 및 선진기술도입

[중부지역]

-자원적인 우세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에너지, 원재료 부분의 기초구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관련 지역들의 기존 공업기초를 충분히 활용

-동부지역과 적극적으로 연합 협력하여 동부의 자금과 기술 및 관리방법을 이용하여 초급 제품의 가공도를 높이고, 그 가공 범위를 확대함.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경공업도 적극 발전시켜 산업 구조를 개선하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산업발전의 교량 역할을 하도록 함.

[서부지역]

-자원개발을 경제구조의 주요 방향으로 삼으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중점 자원에 대해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중점건설프로젝트를 적정 안배.

-현지의 농촌목축업자원에 기초하여 농부산물가공을 위주로 한 경공,방직업 발전

-교통운수 위주의 인프라스트럭춰 건설을 통한 양호한 경제환경 조성

라.서부지역 경제규모



▶면적:위낙 넓은 지역을 망라하고 있어 서부라는 개념이 모호할 지경임. 중국 전체 면적의 70.5%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 960 만km². 서부지역 676.6 만km²

▶인구: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인구가지만 '02년말 기준으로,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중국서부

중국전체:128,453만명. 서부지역: 36,691만명. 이중 사천성이 인구 대성임.

▶GDP(2003)

중국경제의 가파른 경제상승세가 근년 들어 한자리 수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부지역은 서부대개발의 탄력을 받아 2 자리 수자를 기록하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중국전체 GDP는 116,694억 위안(약 1조 4천억 달러, 9.1% 성장)이며 이중 서부지역이 22,833억 위안(약 2,764억 달러)으로 전체 GDP의 19.6%를 차지하고 있음. 단순한 인구대비로만 보아도 서부지역이 중국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회고정자산투자(2003)

중국은 온통 공사장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전 지역이 사회기초 시설건설을 비롯한 고정자산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하여 왔음. 사실 서부의 빠른 경제발전도 사회고정자산투자의 확대에 힘입은 바 큼. 중국전체로는 2003년에 55,118억 위안(26.7%증가)이 투자되었고, 서부지역에는 중국 전체 투자액의 17.4%인 9,593억 위안이 투자되었음.

▶수출입(2003)

서부지역의 직접 교역액은 미미한 수준임. 광둥이나 상해를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서부지역은 외국상품의 2 차 구매지, 국내무역 위주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다만, 신강, 운남, 광서의 경우는 변경무역이 활발한 편임. 서부지역이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3.65%, 수입 3.39%에 불과한 실정임.

서부지역 경제규모

지역구분	GDP (억위엔)		인구 (만명)	고점자산 투자(억원)		면적 (만km ²)	1인당GDP ('02, 元)	대외무역 ('03, 백만\$)	
	2002	2003	2002	2003				수출	수입
중국전체(A)	102,398	116,694	128,453	55,118	960		7,516	438,473	413,096
서부지역(B)	20,045	22,833	36,691	9,593	676.6		n.a.	16,008	14,010
쓰촨(四川)	4875	5456(11.8)	8673	2158	48.5		5766	3034	2753
중칭(重慶)	1971	2250(11.4)	3107	1269	8.2		6347	1491	1071
윈난(雲南)	2232	2459(8.6)	4333	1024	39.4		5178	1470	1250
궈저우(貴州)	1180	1344(10.1)	3837	654	17.6		3140	812	744
광시(廣西)	2437	2733(10.2)	4822	987	23.7		5062	1778	1445
시짱(西藏)	159	185(12.1)	267	135	120.0		5983	99	48
샨시(陝西)	2036	2399(10.9)	3674	1250	20.6		5523	1908	1649
간쑤(甘肅)	1161	1293(10.1)	2593	650	45.4		4493	741	551
신장(新疆)	1598	1850(10.8)	572	1000	166.0		8365	2389	2469
칭하이(青海)	341	390(12.1)	529	285	72.0		6424	221	122
닝시아(寧夏)	330	381(12.0)	1905	310	5.2		5800	538	207
네멍꾸(內蒙古)	1725	2093(16.3)	2379	1121	110.0		7233	1527	1701
B/A	19.6	19.6	28.6	17.4	70.5			3.65	3.39

자료원:각 지방정부 연감, 중국해관통계

2.서부대개발 추진 방향

건국~ 개혁개방이전

1차 5개년 계획기간(53~57) : 소련식 공업화 모델에 기초, 중공업 발전정책 실시
 3~4차 5개년 계획기간(60년대) : 삼선건설(三線建設)전략에 따른 서부지역 투자(군사공업시설 서부내륙 이전)



80~90년대

투자 중점이 연해지역, 특히 경제특구로 이동



90년대 중반 : 중서부 내륙개발의 중요성 제기

- 장강 연안 내륙지역 및 변경지역 개발 가속
- 서부지역 빈곤구제기금 확충 및 동 지역 인프라 건설
- . 94년부터 8.7 빈곤탈출계획(7년 동안 8천만명의 빈민구제)을 수립, 전력망 설치, 상수도시설, 도로건설 사업 등 추진)



2000년대 : ‘장기발전전략’으로서의 서부개발 추진

- 개발초기(2000~2005년) : 개발계획 및 정책수립, 주요 기구수립, 홍보, 기초건설 가속
- 대규모 개발 (2006~2015년) : 서부지역 개발능력 제고, 투자규모 확대
- 전면발전 (2015~2050년) : 서부지역의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 수준 제고

[정책목표]

- 서부지역 경제개발을 통한 동,서 빈부격차 해소
- 서부지역 자원을 이용한 사회, 경제분업으로 동,서부 공동발전
- 국내 내수시장 확대

3.정책추진골격

가.개발전략

-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생태환경 건설 주력
- 맹목적 자원개발 배제 --->환경 친화적 개발
- 생산능력확대 및 경쟁우위 산업--->첨단산업 육성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

나.행정부서: 서부개발 영도소조 및 판공실 설치(조장:국무원 총리)

(國務院西部地區開發領導小組辦公室)

*판공실 : 서부개발 정책수립(정책기획팀), 환경(개발팀), 인프라건설,

산업구조조정(경제사회발전팀)분야로 구성

다.재원조달 기본 방향

((대내))

- 중앙정부 예산편성 --->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포함
- 국채발행
- 국내기업의 서부건설 참여 유도 ---> 투자우대정책, 대출 확대

((대외))

- 외자유치 ---> 세제상 혜택(소득세, 증치세 징수 조건 완화 등),
기업설립조건 및 주식보유비율 제한 완화
- 외국정부 차관 유치
- 기존 중국투자기업의 재투자 유도 ---> 외자비율 25% 이상 시 외상투자기업으로 인정, 내자기업 도급 경영 허용 등

라. 서부대개발 주요 지침

중국 국무원은 2000년부터 시행한 서부대개발정책에 대해 각 지방정부와 서부대개발 관공실이 조치방향을 장시간 협의 조정해 2001. 8월말 '서부대개발 정책 실시에 대한 의견 (關於西部大開發若干政策施策的實施意見)'을 편제하였으며, 이를 다시 4개월여 검토한 끝에 2001.12월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하였음.

동 의견은 중국중앙정부가 서부대개발 정책 실시를 발표하고 나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20 항 7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의견에 근거하여 각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별로 각각의 우대정책들을 시행하고 서부대개발을 추진토록 한 것으로, 서부대개발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관련 <의견>의 20항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1. 정책 및 조치의 적용범위 :중경시(重慶市),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貴州省), 운남성(雲南省), 티베트, 섬서성(陝西省), 감숙성(甘肅省), 영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청해성(青海省), 신강자치구(新疆自治區(新疆의 建設兵團은 별도)),내몽고자치구(內蒙古自治區), 광서자치구(廣西自治區)(이상지역은 통일로 서부지역이라고 명명함). 기타 지역의 민족자치주(湖南省의 湘西土家苗族自治州, 湖北省의 恩施土家苗族自治州,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실제 사업 중에서 정책 및 조치 상 일정한 혜택을 준다.
2. 건설자금 투입 강화 3. 우선권 부여 건설프로젝트 4. 재정지출 강화
5. 금융 신용대출 지원 강화 6. 투자서비스환경 개선
7. 세금 우대정책 실시 8. 토지사용우대정책 실시
9. 광산자원 우대정책 실시 10. 납입금제도 조정
11. 외국기업의 투자분야 확대 12. 외국자본의 이용방법 확대
13. 외자유치 관련 조건 확대
14. 대외경제무역 적극 발전
15. 지역간 협력과 이 분야 활동 지원 강화
16. 인재 유치와 합리적 이용 강화
17. 과학기술의 주도적 작용 발휘
18. 교육분야의 투자 증가
19. 문화위생 등 사회사업건설 강화
20. 정책 및 조치의 해석과 실행사업을 철저히 진행

마. 외국인투자기업관련 세수 우대사항

국무원은 '서부대개발 정책 실시에 대한 의견 (關於西部大開發若干政策實施的實施意見)'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정책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동 우대정책은 기대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동부연해지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서부 각 지방 정부는 동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별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세수우대정책실시(제7항)◆

조 문	구분	내용
21 조	기업소득세	서부지역에 설립한 국가장려항목의 내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2001년부터 2010년 기간에 기업소득세를 감세하여 15%의 세율로 징수한다.
22 조	기업소득세	서부지역에 교통, 전력, 수리(水利), 우정(郵政), 방송(사업)을 신규로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감면의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윤 발생 년도부터 1차 년도와 2차 년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3년차부터 5년차까지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25 조	자체사용설비 면세	서부지역내자장려산업,외국인투자장려산업 항목의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하는 자체사용설비는 관세 및 수입증치세를 면제한다.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 >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항목의 투자총액내 수입하는 자체사용 설비는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한다.

◆광산자원 우대정책(제9항)◆

조 문	구분	내용
34조	탐사개발 채광	외국인투자자가 석유,가스 이외의 광산자원 탐사개발 채광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에서 기 실시하는 관련 우대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외에 탐광권,채광권 사용비의 1년 면제 , 탐광권,채광권 사용비의 2년 반감 정책 우대를 누릴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중 장려류의 광산자원(석유,가스 제외)을 개발 채광하는 경우 광산자원보상비 납부를 5년간 면제해주는 정책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외합영방식 중 중국측이 탐광권, 채광권을 지분으로 하는 경우 탐광권, 채광권을 법규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확인하여 합리적으로 가치 환산하며 중국측이 관련된 지질성과 자료를 제공한다.

◆외국인투자영역확대(11항)◆

조 문	구분	내용
38조	투자영역 확대	외국인이 투자한 서부지역의 농업, 임업, 수리, 교통, 에너지, 도시 공공인프라, 환경보호 등 기초산업 또는 기초시설건설, 광산.관광 등 자원개발, 기술연구개발센터설립은 외국인투자장려산업의 각종 우대정책을 누린다. 정부는 각 지역의 경제발전 상황과 조건변화에 근거하여 적시에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위산업 리스트 中西部地域外商投资优势产业目录> 및 관련 조치를 보충 수정하여 서부지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39조	서비스 분야 시범 실시 지역 확대	서부지역 서비스무역영역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외국인투자자의 은행.상업소매기업투자 시범실시지역 을 서부지역 중심 도시(직할시, 성의 수도 및 자치구 수도)로 확대한다. 중외합자무역회사의 시범 실시지역 을 서부지역 중심도시로 확대하며 동시에 중외쌍방의 자격조건을 동부지역과 대비하여 적정히 완화한다. 중국이 WTO가입 이후 법률 및 관련 협의의 틀 내에서 서부지역 외자은행의 인민폐 업무 경영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외자보험회사 가 서부지역에 그 경영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허가해주며, 외국인투자자가 서부지역에 설립하는 보험대리공사 및 합자보험중개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서부지역에 중외합자여행사 를 설립 운영하는 경우 자질심사 및 항목비준 방면에서 적절히 그 표준을 완화한다. 중국이 WTO가입시 승낙한 사항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의 회계회사(사무소) 가 서부지역에 중외합자회계사사무소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설립조건을 일시적으로 구비치 못한 경우에는 서부지역에 연락소 설립을 허용하여, 현존 중외합작 회계사사무소가 서부지역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조건이 성숙되면 서부지역에 중외합작 법률사무소 설립운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중외합자합작건축 및 관련 서비스.설계서비스업 설립을 허용하며 동시에 외국기업이 경영권을 갖는 것을 허용하며 점진적으로 건축 및 상판 서비스, 설계서비스, 공정서비스, 도시계획서비스 영역에 외자기업 설립을 허용 한다. 점진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중외합자철도화물운송기업, 중외합자도로화물운송기업 중에서 경영권을 갖는 것과 철도화물운송, 도로화물운송영역에서의 외자기업 설립을 허용한다.

◆외자이용조건확대(제13항)◆

조 문	구분	내용
42조	투자주식 비율제한 완화	외국인투자자가 서부지역의 기초시설 및 우위산업 항목에 투자하는 경우 서로 다른 산업분야별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비율 제한을 완화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서부지역 상업투자 항목에 대해 경영기간을 40년으로 확대한다(동부지역에 비해 10년 연장); 등록자본은 동부지역보다 2,000만 위안 적은 3,000만 위안으로 한다. 중국내 외자기업과 중외합자합작기업이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기업 등록자본 중 외자비율이 25%이상인 경우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43조	대출금 비례완화	외국인투자자의 서부지역 기초시설 및 우위산업항목에 대해 중국내 은행이 제공하는 고정자산투자 인민폐대출금의 비례를 적절히 완화 한다. 중외합자합작항목은 일반적으로 중국 측 출자비율의 120%까지 확대하며 외국인투자항목의 경우는 등록자본의 10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투자산업 지도 리스트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의 장려류에 속하는 항목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위산업 리스트>에 속하는 항목에 대해 외국인투자자가 신용이 있고, 대출금을 프로젝트상 소요되는 중국산 설비나 재료를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중국내 공정하청비용 지불에 사용하는 경우 국내은행이 제공하는 고정자산 인민폐 대출금은 상기 비율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은행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자체 확정한다. 외국인투자항목의 인민폐를 포함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허용한다.

4.서부대개발 초기성과 및 전망

가.초기성과

서부대개발 정책은 실시 했수로는 금년에 5년이 되었으나, 사실상은 중국국무원의 실시지침(의견)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따지면 만 3년의 시간이 흘렀음. 특히, 서부대개발정책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거나 서부대개발 정책 시행 이전에 계획(진행)되었던 것들도 다수 포함되

어 있어 정책 실시 후 시행 프로젝트의 정확한 실상 파악은 어려운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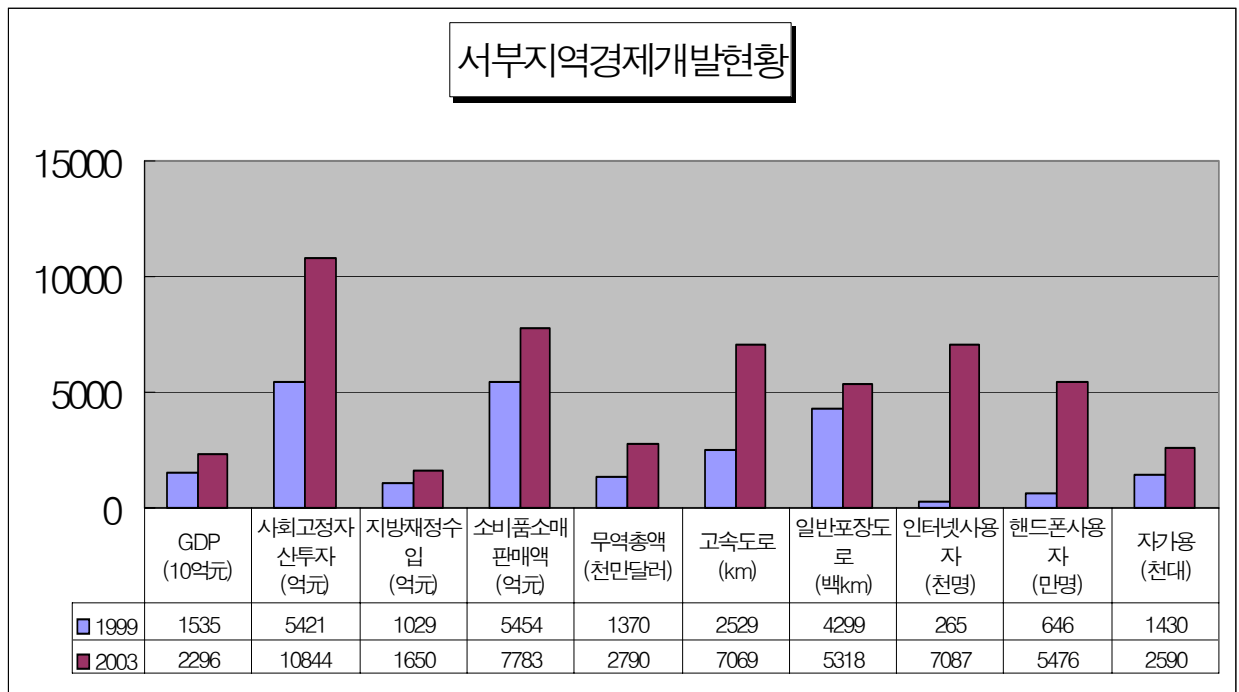
최근 중국 언론에 보도된 중국정부의 자체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서부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서부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대약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경제지표로 본 변화

서부지역 12개 성시 자치구를 포함하는 서부의 광대한 지역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몇 통계수자로 나타난 서부의 발전상은 아래 와 같음. 동 수치를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성장(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 1)경제규모의 빠른 확대
- 2)사회기초시설의 뚜렷한 확충
- 3)소비시장의 빠른 확대로 요약 특징지을 수 있음.

한 마디로, 서부 경제가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부문별 성과

[중점프로젝트]

-중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서부대개발 관련 서기동수(西氣東輸), 서전동송(西電 東送) 등 총 8,500억 위안 규모의 60여개 신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3개 프로젝트가 2004년 말까지 전면 또는 부분 완료되어 가동에 들어갈 계획임.(주1)

***서기동수(西氣東輸)**

중국서부지역인 신장 타리무(塔里木)의 천연가스를 10개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를 통과시켜 상하이까지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파이프라인만 약 4,000km에 달하며, '04년 10월 동부라인이 개통되었음.

***서전동송(西電東送)**

황하, 양자강, 산협댐 등 대형 수력,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남,중,북 3개 송전망으로 나눠 화남, 화동, 화서지역으로 수송하는 프로젝트로, 이중 남부 송전망인 광둥(廣東) 송전 부문 1,000만KW 증설 프로젝트가 앞당겨 완공되었음.

***서장-청해 철로(靑藏鐵路)**

총 연장 1,925km의 철로를 건설하는 관련 프로젝트도 고원기후의 악조건 속에서도 공사를 계속하여 현재 약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음.

***퇴경환림(退耕還林)**

황폐한 농경지를 산림으로 재환원시켜 주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 2.88억 무(畝=약 200평)에 해당하는 황폐 농경지와 산을 숲으로 조성하였음.

이밖에 고속도로 및 주요간선 국도 건설, 천연삼림보호, 황사근원지 처리,

서부중심도시 공기오염처리 등 중점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주2)

[국민생활수준제고]

서부대개발 5년간 평균 경제성장을 10%를 유지함으로써 생활수준이 지속 향상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서부대개발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및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20%에 달하는 투자 등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서부 12개 지역의 경제성장은 10%를 상회하였음. 또한 4,600여억 위안에 달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 5,000여억 위안에 달하는 간접적 재정지원 및 전문 프로젝트 보조금, 장기건설국채 1/3 이상의 서부지역 사용 등으로 서부지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생활수준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음.

[농촌지역 SOC 및 사회사업 분야]

현(縣)급 빈곤지역에 1.7만km의 인입 도로 및 4.6만km의 국도, 2.6만km의 송유관 을 건설하는 등 지난 5년간 서부 농촌지역의 교통, 수리(水利), 에너지 등 SOC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농가 생산 및 생활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음. 또한 서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17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특히 농촌 의무교육 시행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농촌 공공위생시설 분야에도 80여억 위안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음. 공중과 시청지역 확대, 현(縣)급 문화관·도서관 및 향진(鄉鎮) 문화원 등을 건설하여 농촌 빈곤지역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산업구조조정과 시장개방 확대]

시장경제 및 국가적 차원의 산업구조조정에 힘입어 서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전력, 석탄, 석유·천연가스, 유색금속, 면화, 목축, 여행업, 일부 장비제조업, 첨단산업 등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지난 5년간 서부지역의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100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여기에 국제기구 및 외국차관 등을 합하면 실제 외자 유치액은 150억 달러에

달하였음. 한편 1만여개 동부 연해지역 기업들이 서부에 투자하여 동서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였음.주3)

주1):각 성시별로 매년 10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중형으로 연결되어 있음. 중국정부는 2000년 청해-서장 연계철로(靑藏鐵路), 서부개스의 동부운송 프로젝트(西氣東輸), 서부 전기의 동부송전 프로젝트(西電東送), 주요 수리시설공사(水利樞紐), 교통망 구축(交通幹線) 등 10대 중점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래 매년 10여개의 신규 중점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왔음. 예를 들면 2003년에 추가되어 추진되고 있는 신규 중점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①.중경(重慶) 만주(萬州)에서 의창(宜昌)에 이르는 만의철로(萬宜鐵路)(378km), 사천(四川) 수녕(遂寧)에서 중경(重慶)에 이르는 수유(遂渝鐵路)철로(128.5km). 완의철로는 양자강 철로채널의 주요 수단이며 수유철로는 유희철로(渝懷鐵路)와 연계되어 성도-수녕-중경-회화(成遂渝懷鐵路)철로를 이룸.

②.내몽고(內蒙古) 포두(包頭)에서 등구(磴口)에 이르는 도로(227km), 섬서(陝西)호현(戶縣)에서 면현(勉縣)에 이르는 도로(259 km)등 국도 주요간선 공사. 이 두 갈래 도로는 중국의 소위 "오종칠횡"(五縱七橫)도로 주요간선임.

③감숙 구진협(甘肅九旬峽)의 토하(土河)의 물을 인근으로 끌어들이는 공사. 저수지 용량 9.07억 m³, 발전소 설비용량 24.8만 kW, 물 공급공정의 총 길이 109.7km에 달함.

④중경(重慶) 충현(忠縣)에서 호북(湖北) 무한(武漢)에 이르는 천연가스 수송파이프라인. 파이프의 총 거리는 738km, 년 간 가스수송능력은 30억 m³로 설계되어 사천중경청(川渝盆地) 분지의 천연가스자원 개발과 연계되어있음.

⑤사천대도하폭포구(四川大渡河瀑布溝) 수력발전소, 설비용량 330만kW. 서부전력의 동부송전 프로젝트의 중부지역 채널의 하나. 양자강 유역과 상류 지구의 풍부한 물 자원 개발과 관계됨.

⑥신화석탄액화공정(神華煤炭直接液化工程). 공정건설 후 유류 제품의 생산량이 년 250만톤에 달하며 서부지역의 석탄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⑦서장(西藏 티벳)과 신강(新疆)의 도시 인프라 시설. 길이가 1,580m에 달하는 라싸시(拉薩市) 제이대교(第二大橋), 신강아크소시(新疆阿剌蘇市) 도로건설, 가스수송파이프, 열공급망 파이프, 방호림(防護林) 등이 포함되어 있음.

⑧중서부 농촌 중점학교 전산정보망 구축과 원거리 인터넷 교육. 5만개의 위성중계소, 2만개의 전산교실, 30만개 CD방영점 건설. 전산망 기술과 원거리교육을 수단으로 서부지구의 기초교육 확대.

⑨현급도로(농촌지역 연결도로). 2003년에 건설하는 서부지구 현급도로는 2만 km에 달할 예정. 기존의 교통망(交通通道), 경제벨트(經濟走廊), 관광노선(旅遊線路) 및 해관지역(口岸通達)연결과 연계되는 현급 도로 및 향(鄉), 읍(鎮) 도로의 개선.

⑩경작지를 삼림으로 환원(退耕還林).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11,548만 무에 달하는 경작지를 삼림으로 되돌렸으며, 2003년에 10,700무 환원 예정. 그 중 5,050만무의 경작지를 삼림으로, 5,650만무의 민동산을 삼림으로 환원 예정임.

(11)목장의 초지환원. 2003년 초지로 환원 예정인 목장은 1억 무 정도임. 명간닝(내몽고-감

숙-영하(蒙甘寧) 서부황막초원, 내몽골동부퇴화초원, 신강(新疆)북부퇴화초원, 청장고원(淸江高原)동부 강하원(江河源)초원 등 심각하게 손상된 초원을 중점으로 실시.

(12)농촌식수공급. 2003년에 서부지구 800만 농촌주민의 식수문제를 해결하며 물자원 등 조건의 변화로 생긴 문제와 불소함량이 많은 식수, 고함수(苦咸水.쓰고 짠물)지역 주민에 대한 깨끗한 식수 제공문제 해결.

(13)농촌에너지. 생태환경건설과 연계하여 서부지역의 농촌에너지 자원건설에 박차를 가함.. 농촌 메탄가스 등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여 농민의 땀나무 남벌 문제 해결. 300 여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농촌지역(無電鄉鎮)의 전기사용문제 해결.

(14)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이민과 빈곤층의 이전 지원. 생태환경건설과 관련하여 생태환경적 지위가 중요한 지역,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 기본생존조건을 상실한 지역의 빈곤인구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생태환경보호 차원의 이민실시 및 빈곤층 지원 실시. .

주2)국무원서부판공실망의 보도자료(2004.11.19)에 따르면 2000-2003년간 중앙정부에서 중앙재정으로 건설자금을 서부지역에 3,600억위안을 투입하였으며 그중 장기 건설국채자금이 2,200억 위안이었음. 서부지역의 각종 금융기구가 각 프로젝트별로 대출해 준 자금 잔액은 2003년말에 9,500억 위안에 달하였음. 4년간 서부지역에서는 50개의 중점 프로젝트가 신규로 시작되었으며, 총 7,300억 위안이 투입되었음. 그중 사회기초시설 분야 중점 프로젝트에 2,000여 억 위안이 투입되었음. 주요 공사로는 청해성-서장(티베트)간 철로 317km, 서기동수(서북 신강지역의 가스를 동부공업지대로 보내는 프로젝트) 동부라인 공사 전부 완공(화동지역의 상해시, 강소, 절강 지역에 가스가 공급되고 있음) 서전동송(서부의 전기를 동부로 보내는 프로젝트) 신규 투입 발전기 용량 2,800여만 kw, 송전선로 9,800km, 대형 수력댐(저수지) 43 곳, 탑리목하(塔里木河),흑하(黑河) 오염 처리공정 초보 완성, 신규 도로개통 7.5만 km, 그중 고속도로 4,600km, 철로(신규건설, 복선화, 전기화) 4,570km, 공항(신규,확대) 30 곳(15개 준공,15개 건설중)임.

주3)중국동서지역간협력: 동 서부간 협력 움직임은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주도되었으나 서부대개발 정책 실시 이후 각 성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로는 2004 4년 5월 중순 사천성(四川省)정부와 절강성(浙江省)정부가 양 지역간 협력협약서 (關於加強川浙兩省 經濟社會發展合作的(木匡)架協議)를 체결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원교류, 위생, 관광, 농업 등 6개 분야의 별도의 협의서를 체결한 것이 그 예임. 절강성의 사천성내 투자액은 이미 200 억 위안(한화 약 3,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수도 1,500여 개에 달하고 있음. 이들 기업들의 매년 판매액은 100억 위안(한화 약 1,5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사천에서 활동하는 절강 사람이 30만명 이상이며, 투자기업 외에 조그만 점포 등 공 상업 부문 종사기업수도 10만을 초과하는 등 이미 양 지역간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임. 절강성 기업의 진출은 제조업, 도소매시장, 농업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영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절강기업들의 운남성 진출도 활발하여 2003년 운남성이 유치한 중국내 자본유치액 92억 위안 중 50억 위안이 절강성으로부터 투자된 것임. 한편, 지방정부간 무상원조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2004.5월 중경시(重慶市)를 방문하였던 요녕성 대표단은 그동안 지원해 왔던 중경시 봉절현(奉節縣)에 추가로 향후 3 년간 4천만 위안(한화 약 60억원)을 무상원조하기로 한 예가 있음. 잘사는 지역정부가 빈곤한 지역 정부를 돕는 현상이 동서지역 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이러한 중국 내 지역정부간, 기업 간

의 협력 활성화는 중국 동부지역이 이제는 다른 지역을 도울 만큼의 경제여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서부지역이 외자뿐만 아니라 내자 유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문제점과 향후전망

1)문제점

서부대개발 정책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음. 특히 도로, 내륙항구, 발전소, 전력망 구축 등 사회기초시설(SOC) 구축 분야의 성과는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부지역의 경제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서부 역시 중국연해지역 개발의 모델과 유사하게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이 구사되고 있어, 중심도시와 지방도시간,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빠른 경제속도에도 불구하고 동부연해지역과 경제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더욱 뒤쳐지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전체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동부:중부:서부 지역이 차지하는 점유비는 1999년 58.7:27.5:13.8이었으나 서부대개발이 시행된 4년차인 2003년에 그 비중이 60.5:26.3:13.2로 중부와 서부지역의 비중이 줄어들고, 동부지역은 증가하는, 즉,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를 들면 연해지역에 초보적으로 형성된 장강삼각주, 주강(珠江)삼각주, 베이징 천진 하북성 경제권의 세 지역만으로도 경제역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39.3%, 실제외자이용액의 68.5%, 수출액의 72.3%를 차지할 정도로 연해지역에 경제력이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동서 지역간 경제격차 외에도 도농간의 경제격차에 있어서도 서부지역의 괴리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990년 중국의 도시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농촌주민 일인당 순소득의 2.2배였으나, 2000년에는 2.8배로 그 차이가 벌어졌으며 2002년에는 3.1배로 그 차이가 더

욱 벌어졌음. 서부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도농간 소득 격차가 3.6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서부지역이 도시 성장에 보다 큰 중점을 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지역적인, 도농간의 소득 격차 외에도 서부대개발은 자원의 마구잡이식 개발 및 낭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중복투자문제, 환경오염악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2) 향후전망(발전방향)

비록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서부대개발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서부 각 성시가 대부분 매년 두 자리 수자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농촌지역 경제발전에도 일정 성과를 거두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곤 탈출을 하였으며,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가 비상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초기성과 부분 참조)

이러한 기초적인 성과에 힘입어 서부지역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은 물론 내외자의 유입이 향후로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서부대개발의 발전 방향은 궁극적으로 경제부흥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형성에 두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3년 서부대개발영도소조판공실이 초기의 생태환경건설과 인프라구축을 중점 과제로 진행한 서부대개발이 기초적인 단계를 지나 심화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서부지역의 경제 발전방향에 대해 서부지역에 8대 경제 벨트를 형성하고, 45개 중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기한다는 구상을 언급한데서도 알 수 있음.

중국사회과학원의 관련 연구팀의 보고서를 기초로 제시된 서부지역 발전중점 지역(방향)은 아래와 같음.

1)4대 1급 경제벨트

- ①서릉해--란주-신강(西隴海-蘭新線)경제벨트
- ②후허하터-포두-란주(呼包-包蘭)-한주-청해선(蘭靑線)경제벨트
- ③양자강상유 성도,중경(長江上遊成渝)경제벨트
- ④운남-귀주-곤명(南貴昆) 경제벨트

2)4대 2급 경제벨트

- ①사천-귀주(川黔沿線)경제벨트
- ②광서-서장(廣西西藏)경제벨트
- ③곤명-서려(昆明-瑞麗)경제벨트
- ④서장"일강양하"(西藏"一江兩河")경제벨트.

3) 45개 중심도시

- ①1급중심도시: 중경(重慶), 성도(成都), 서안(西安)
- ②2급중심도시: 곤명(昆明), 란주(蘭州), 우루무치(烏魯木齊)
- ③3급중심도시: 남녕(南寧), 후허호터(呼和浩特), 은천(銀川), 귀양(貴陽), 서녕(西寧), 라싸(拉薩), 유주(柳州), 포두(包頭), 면양(綿陽)
- ④4급중심도시:계림(桂林), 방성항(防城港)등 30 여개 도시.

특히 이들 도시 군에서도 성도-중경-서안을 잇는 경제권역 건설에 우선적인 중점을 둔다는 계획임. 또한, 란주-백은(蘭州-白銀), 곤명(昆明), 천산산맥북쪽기슭(天山北麓, 주로 우르무치), 후허하터-포두-어얼도스(呼和浩特-包頭-鄂爾多斯), 은천-오충(銀川-吳忠), 남녕-북해-흙주-방성항(南寧-北海-欽州-防城港),귀양(黔中(貴陽))등 일곱개 도시 군을 건설한다는 계획임.

다시 말해 서부대개발의 2단계는 도시를 중점으로 주요 경제벨트를 형성하여 서부의 전체적인 경제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며, 동 방향으로 중점 프로젝트들이 구성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각 도시 내 인프라 구축,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등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성도-중경-서안을 잇는 지역의 IT, BT, ET 등 첨단 기술산업의 육성과 서부지역에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자원개발, 지역의 특색을 살

린 농업, 공업의 육성 등 정책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주)중국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서부대개발정책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최근 대내외에 재천명한 바 있음. 광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닝샤(寧夏)에서 2004.11월 개최된 "중국서부포럼(2004 中國西部論壇)"에서 국무원 부총리인 쑹페이옌(曾培炎)이 "중앙 정부의 서부대개발 정책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민족단결 및 변경지역의 안정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코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서부대개발 프로젝트는 후퇴는 결코 없고 오로지 전진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천명한 바 있음.

II. 서부지역과 한국과의 관계

1. 한국의 대서부지역 투자동향

우리나라의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투자건수 기준으로 131건, 투자금액 기준으로 2억 달러에 불과해 대중투자 전체에서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 2.1% 정도임.

서부지역이

- 1)경제가 낙후되어 자체 시장이 미약하다는 점
- 2)워낙 중국의 내륙에 자리 잡고 있어 물류가 불편하였다는 점
- 3)중국연해지역에 비해 개방이 늦었다는 점 등이

우리기업의 동 지역 진출 부진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이 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기업의 진출은 활발치 못한 상황인 것은,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제도, 인프라, 사업기회 등에서 우세한 동남부 연해지역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서부지역은 기본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물류유통의 어려움 상존), 적정 정보 입수가 어려운 점, 불확실하고 아직은 작은 규모의 시장으로 인해 접근이 여전히 용이치 않기 때문임.

대기업으로는 대우, 금호, CJ, 한화, 휴비스 등이 투자 진출해 있으며, 삼성, LG 등 유명기업들이 중국투자법인의 현지법인 형식으로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이외 소수 개인 투자자들이 요식업이나 중국인 명의를 빌어 활동하고 있음. 지역별로는 사천성(성도), 중경시, 광서장족자치구(계림) 지역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임.

우리나라의 서부지역 투자현황(2004.11)

(단위:미\$천, 건)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중국전체(A)	12,602	16,341,807	10,729	9,738,224
사천성	55	72,367	49	49,312
자치구	44	389,494	32	114,711
해남성	16	63,777	14	24,301
섬서성	15	11,595	13	7,244
운남성	12	7,471	11	3,999
감숙성	7	1,892	6	728
귀주성	6	7,394	5	6,194
청해성	1	121	1	121
서부소계(B)	156	554,111	131	206,610
점유율(B/A)	1.2	3.4	1.2	2.1

자료원:한국수출입은행

주:1.중경시는 사천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2.자치구는 신강, 광서, 서장, 영하, 내몽고 등 자치구.

주1)서부지역에 진출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들라면 현지 고속버스 사업에 뛰어들 D(95년, 450만달러, 사천)와 K(95년, 450만달러, 사천)가 대표적임. 제조기업으로는 최근에 진출한 C(2003, 사료, 사천)를 들 수 있음. 투자규모 면에서는 현재 투자를 진행중인 H사(8,000만 달러, 사천, 화학분야)가 대표적인 업체로 부상하고 있음. 이외 해운회사,대기업들의 지사가 2003년부터 늘어나고 있음(S,H 사등). 또한 중경,성도,서안,곤명 등지와 한국간에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관광객은 물론 개인사업가들의 서부시장 탐색방문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투자기업 및 주재상사의 수는 여전히 극히 미미한 수준임. 성도, 중경과 같은 서부의 주요 중점 도시별로 많게는 20여개 적게는 5개 이내인 지역이 대부분이며, 본사가 직접 관할하는 지사형태 보다도, 중국에 투자된 현지 투자법인의 지사형태가 많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주2)현지 지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서부대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부지역에 투자 혹은 사무소를 설립한 다국적기업들의 수가 늘고 있는데 주로 시안(西安), 청두(成都), 충칭(重慶)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서부지역에는 이미 세계 500대 기업 중 토요타, 모토롤라, 이또오, 월마트, BP, MS, 컴팩, 쉘, 고베강철 등 100여 개사가 투자법인,연구개발센터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상황임. 이들 기업들은 풍부한 자원, 거대한 내수시장과 과학기술개발능력 등이 서부지역이 갖고 있는 흡인력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서부지역 최대 투자자인 홍콩의 경우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서부지역 진출에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매년 100-200여개 기업이 서부박람회 참가하고 있음. 홍콩이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는 중국 내륙지역의 기초시설 건설프로젝트분야임. 홍콩기업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과 재무분야의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위 외에도, 중국의 현지 관습에 익숙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임.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나 예를 들면 1999년 현재 중국에는 178개의 외국건축회사가 진출했는데 그중 46%인 81개사가 홍콩기업이었으며, 홍콩건축회사가 중국 내륙지역에서 도급을 맡아 건설한 프로젝트는 200여개로 외국기업이 건설한 프로젝트의 53%에 달하였음.

한편, 일본의 경우 성도, 중경 지역에 80여 회사가 진출(이중 상당수는 사무소 형태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주 성공적인 상황은 아님. 내수 진출에 비교적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음. 투자진출 성공사례로 꼽히는 사업은 토요타가 합자투자(일본 50% 지분, 5천만 달러)한 승합버스(코스타) 사업, 유통업분야에 진출한 이토오요카도(伊藤洋華堂(지분 80%)), 고베강철 그룹 산하의 회사가 투자한 건설기계 분야 기업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 신강, 청해 등 서북지역의 투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기업도 극소수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일본 정부차원에서는 인공위성 발사기지로 유명한 시창(西昌)에서 양자강 상류지역 조림사업을 무상지원해주고 있으며, 일중경제협회가 서부대개발 협력을 위해 성도에 설치되는 등 양 정부간의 협력이 비교적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점임.

미국의 경우는 사천,중경을 중심으로 70-80여개의 투자기업과 사무소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성공적인 진출 케이스가 많지 않은 상황임. 미국투자진출 기업 중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UTC aviation을 꼽을 수 있는데 항공기 엔진 및 관련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여 수출과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그외 피닉스 반도체 공장(성도 인근 낙산시 소재)과 연계된 모토롤라 연구개발센터가 꼽히고 있으며 KFC,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점 정도가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미국의 경우 눈여겨볼 점은 시티은행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금융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점임.

프랑스의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된 라파지(시멘트, 도강언), 성도 상수도공급 BOT 방식 투자와 오상, 까르프 등 유통 분야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외, 비교적 유명한 기업으로는 사료와 포도주 생산 사업에 뛰어든 태국의正大(正大 Chia Tai)그룹이 있음. 사료사업의 경우 (쓰촨의 경우 돼지머리수가 1억두를 넘을 정도로 가축이 많기로 유명함) 정대는 대표적인 주자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였으며, 현지 유력기업인 희망그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음.

2. 한국의 대서부지역 교역동향

가.한-중 교역에서 서부지역이 차지하는 위치

한국과 서부지역간 총 교역액은 2003년에 17억 5천만 달러로 대중교역 총액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임.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 632억 달러 중 서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2004년(10월말 현재)들어서는 점유율이 2.28%로 내려가, 서부와 한국간의 교역이 중국과 한국간의 총교역 증가속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중국의 서부지역 총 교역액 중 한국의 점유율도 2003년 5.84%에서 2004년 10월말 현재 5.23%로 감소세를 보여, 한국과의 교역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음. 수출입 모두 대중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나 특히 수입(서부지역의 대한 수출)비중의 감소가 큰 편임.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과 서부지역간의 교역은 교역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있으나 중국과 한국간의 교역규모, 서부지역의 교역규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의 대외무역과 대한수출입 현황

(단위:미\$ 백만,%)

구 분		2003		2004(1-10)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중국총교역액		851,569	37.1	926,010	35.7
-총수출		438,473	34.6	468,937	34.5
-총수입		413,096	39.9	457,073	36.9
서부지역총교역액		30,018	31.5	31,670	34.4
-수출	A	16,008	32.5	15,833	29.7
-수입		14,009	30.3	15,837	39.5
중국대한수출입		63,265	43.5	72,507	44.2
-대한수출	B	20,105	29.6	21,828	39.1
-대한수입		43,160	51.0	50,679	46.5
서부지역대한수출입		1,752	40.0	1,655	24.9
-대한수출	C	1,410	44.0	1,279	21.1
-대한수입		342	25.7	376	40.2
서부지역의 총교역중 대한교역비중		5.84		5.23	
-수출	C/A	8.81		8.08	
-수입		2.44		2.37	
중국의 대한교역중 서부지역비중		2.77		2.28	
-대한수출	C/B	7.01		5.86	
-대한수입		0.79		0.74	

자료원:kotis,중국세관통계

나.서부 각 지역과의 교역현황

서부 12개 성시와 교역을 보면 한국과 가장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내몽고자치구, 섬서성, 사천성, 감숙성 지역이나, 2004년 들어 이들 지역 중 섬서성을 제외하면 교역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된 상황임. 반면에 섬서성, 광서장족자치구 등과의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교역규모면에서는 1억 달러 이상이 6개 지역(사천성, 중경직할시, 섬서성, 광서장족자치구, 내몽고자치구, 감숙성)이며, 1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지역 역시 6개 지역(운남성, 귀주성, 신강위구르자치구,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서장자치구)임. 이중 서장자치구는 운송물류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역액이 100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서부의 각 지역과의 교역에서 한국이 무역적자(서부지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자원 부문의 수입액이 큰 반면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관세의 부담과 물류의 부담 때문에 서부진출이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에 기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의 산업발전 수준이 높지 않아 부품, 원료성 제품의 수입이 적었던 데도 원인이 있음.

중국 서부지역의 대한국 교역현황(2003)

(단위:천\$, %)

지역명	대한수출	(증감율)	대한수입	(증감율)	교역규모	(증감율)	무역수지
총계	1,410,046	44.0	341,751	25.7	1,751,797	40.0	1,068,295
사천	186,480	51.3	144,571	48.8	331,051	50.2	41,909
중경	66,195	3.4	47,058	55.2	113,253	20.0	19,137
섬서	191,907	-10.4	28880	5.7	220,787	-8.6	163,027
광서	61,217	34.5	44,014	36.8	105,231	35.5	17,203
운남	40,838	-11.0	13,476	116	54,314	4.2	27,362
내몽고	407,173	70.5	5,495	45.6	412,668	70.1	401,678
귀주	57,652	16.3	27,832	-57.6	85,484	-25.8	29,820
감숙	220,473	206.3	12,805	222.9	233,278	207.2	207,668
서장	114	105.9	425	-76.4	539	-71.0	-311
신강	27,212	-39.8	16,200	560.5	43,412	-8.9	11,012
청해	66,543	70.6	108	-44.1	66,651	70.0	66,435
영하	84,242	101.2	887	-5.7	85,129	98.9	83,355

자료원:중국세관통계, KOTIS

중국서부지역의 대한민국 교역현황(2004.1-10)

(단위:천\$, %)

지역명	대한수출	(증감율)	대한수입	(증감율)	교역규모	(증감율)	무역수지
총계	1,279,181	21.1	376,106	40.2	1,655,287	24.9	903,075
사천	136,163	-1.9	134,149	9.1	270,312	3.3	2,014
중경	71,630	32.6	43,252	26.5	114,882	30.2	28,378
섬서	265,720	73.7	40,207	68.5	305,927	73.0	225,513
광서	79,567	80.2	70,331	129.1	149,898	100.3	9,236
운남	35,250	12.0	20,056	377.7	55,306	55.0	15,194
내몽고	290,322	-14.1	26,908	449.7	317,230	-7.5	263,414
귀주	72,242	46.7	14,922	-40.8	87,164	17.1	57,320
감숙	158,687	18.6	2,890	-71.7	161,577	12.2	155,797
서장	324	274.6	549	29.2	873	70.7	-225
신강	17,542	-29.7	19,351	79.2	36,893	3.2	-1,809
청해	79,363	148.0	1,434	1685	80,797	151.8	77,929
영하	72,371	26.6	2,057	201.2	74,428	28.7	70,314

자료원:상동

다.서부지역과의 교역품목

1)한국의 대서부 주요 수출 품목

-한국의 서부지역수출품목은 중국 전체 수출품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서부대개발 정책 추진이 초기 5년간 사회기초시설(SOC)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에 따라, 관련 분야 제품의 수출이 활발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관련 수출 품목별 상황은 아래와 같음.

*석유화학제품

테레프탈산과 그 염, HDPE, LDPE 등 기초성 원료(중간재)제품이 주도하고 있음. 특히, 서부지역의 도로건설이 활발해 지면서 석유아스팔트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석유아스팔트의 경우 2003년에는 중경지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였으나, 2004년에는 섬서성 지역으로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지난해 중경이 '8시간 중경'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금년들어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수요가 준 반면, 섬서성의 경우는 금년 들어 주요 도로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석유아스팔트의 수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임.주)한국의 대기업인 S그룹이 아스팔트 경기가 좋아

집에 따라 중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건설장비

서부대개발의 주요 공정이 도로, 댐건설 등 사회기초시설 분야에 두어지면 서 엑스커베이터의 수출이 상당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주)2003.4월부터 중국정부가 건축기조의 정책을 펼치면서부터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음.

*기타제품

서부에서는 IT분야가 비교적 발달한 사천 지역으로 디지털(각종 칩)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음극선관은 최대 가전 업체인 창홍의 대외판매가 미국의 반덤핑 관정 등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상당폭 감소하였음. 특이한 현상은 광서장족자치구로 소형자동차가 금년 들어 대량으로 이루어진 것임. 한편, 광서장족자치구는 우리진출기업의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어 부품류의 수입이 상당량에 달하였음.

(주:사천(성도), 중경 등의 자동차 소비는 소형 자동차에서 중형으로 넘어가는 단계임. 광서장족자치구의 소득수준이 서부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는 하나, 사천(성도),중경 등 주요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있어,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부담 감소를 감안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임.)

한국의 대서부 주요 수출 품목

(단위:미\$천, %)

HS Code	품목	소계	주요 수출지역
271019	휘발유 등 정제유	7914	운남
271320	석유아스팔트	14827	섬서,중경,귀주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42524	사천,신강
390110	LDPE	1496	운남,신강
390120	HDPE	5120	신강,운남,신강
390190	에틸렌중합체	4023	신강,운남
390210	폴리프로필렌	2573	운남
390230	프로필렌중합체	467	운남
720836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1590	섬서
720917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10213	중경,섬서
721050	평판압연제품(크롬,산화크롬 도포)	3408	섬서,청해,신강
721069	평판압연제품(알루미늄도금,도포)	1180	섬서
721913	평판압연제품(스테인레스강)	4201	섬서,귀주
842952	엑스카베이터	4678	중경,신강,서장
854221	디지털(칩,기억소자)	13106	사천,감숙
870321	자동차(1,000cc이하)	35198	광서

자료원:상동

2)한국의 대서부 주요 수입 품목

중국서부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크게 각 성시의 특색상품(작물)과 자원성 광산물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품의 대 서부 수입액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각 제품별 총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서부지역이 주요 자원 공급지역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관련 분야별 수입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역별 특색상품

- 사천성: 견(비단)
- 신강위구르자치구: 토마토편(케찹)
- 운남성, 귀주성: 잎담배

주1) 사천성 동부지역인 남충(南充)의 비단은 품질이 좋으며, 대외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음.

주2)신강지역은 토마토를 대량 재배하며 이를 케찹으로 만들어 수출하고 있으나, 토마토 가공시 배출되는 오폐수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음.

주3)운남성은 중국의 유명한 홍탑산(紅塔山) 담배의 고향으로 담배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임.

*광물자원

서부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광물자원은 아래와 같음. 이외에도 양은 적으나 티타늄, 바나듐 등의 희귀 광물도 수입되고 있음.

수입광물자원:몰리브덴, 규소(실리콘), 인, 산화안티몬, 탄산바륨,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코망간, 알루미늄의 껍, 연(鉛)의 껍, 아연의 껍(비합금),망간과 그 제품, 유연탄 등

한국의 대서부 주요 수입 품목

(단위:미\$천,%)

HS Code	품목명	대서부수입 소계(A)	대중수입총 계(B)	점유율	주요 수입지역
100590	옥수수	28487	140763	20.2	내몽고
200290	토마토페이스트	4687	5385	87.0	신강
240120	잎담배	9678	10455	92.6	귀주,중경,운남
240220	권련	874	2106	41.5	운남
261310	몰리브덴광	25306	80663	31.4	섬서
270112	유연탄	303608	796842	38.1	섬서,내몽고
280469	규소(실리콘)	8625	35472	24.3	광서,섬서,사천,청해성
280470	인	5721	5868	97.5	운남
282580	산화안티몬	7002	9355	74.8	광서
283660	탄산바륨	5289	6911	76.5	귀주
310210	요소	5708	58848	9.7	사천,감숙,신강
500720	견직물	20785	56448	36.8	사천
720211	페로망간	16562	39751	41.7	광서
720221	페로실리콘	80437	107680	74.7	영하,감숙,청해,내몽고,신강
720230	페로실리코망간	28710	32341	88.8	귀주,사천,광서
760110	알루미늄(비합금)	239519	602221	39.8	감숙,청해,내몽고,사천,영하, 중경,섬서
780110	연(鉛)의 괴	6506	66343	9.8	청해,감숙,영하,운남
790111	아연의 괴(비합금)	12435	29719	41.8	중경,섬서,영하,감숙,청해
811100	망간과 그제품	11171	33611	33.2	귀주,중경,청해

자료원:상동

3)서부 각 지역별 대한 주요 수출입품목 현황: 별첨 자료

III.우리기업의 서부개발 참여 방향

1.우리기업 진출 가능 분야와 지역

가.지역선정

서부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이어서 어느 한 지역을 꼭 짚어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부대개발정책 대상지역인 12개성시 중에서 비교적 발달한 사천(四川)성, 중경(重慶)시, 섬서(陝西)성 정도가 현지 진출에 비교적 유리한 시장환경과 사회환경을 갖춘 지역임.

쓰촨성의 경우는 낙산(樂山)-성도-덕양(德陽)-면양(綿陽)을 연결하는 고소 특 고소비선과 강철과 광물로 유명한 반지화(攀枝花)지역이, 중경은 중경의 도시지역, 섬서성의 경우는 서안(西安),함양(咸陽)지역을 들 수 있음.

이들 지역은 2005년에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2,000-3,000달러대, 2010년에는 4,000-5,000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서부지역에서 경제발전이 빠른 지역에 속함.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서부의 물류망이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에서도 국민소득과 소비수준이 높은 도시지역이어서 서부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투자 진출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일차 진출목표지로 삼아야하는 지역임. 특히 IT ,일반소비재, 전자재 관련 업체의 경우는 서부지역에서는 동 지역을 진출목표지로 삼아야 함. 투자진출의 경우도 이들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시스템이 갖추어진 국가급이나 성급 개발구들이 있어 그만큼 진출 면에 있어 위험 부담이 적으며, 각종 세제혜택, 행정서비스, 대외 이미지, 시장확보 면에서 유리한 상황임.

나.진출유망(가능)분야

진출유망(가능)분야로는 위에서 언급한 IT, 전자재, 일반소비재, 전기전력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환경보호산업 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사실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은 스타트부터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국가지도자들이 서부대개발을 언급할 때 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같이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음. 특히 양자강 상류 하천들의 수질오염문제와 도시마다 처리에 전전공공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 농촌지역 오염문제,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 등은 서부지역이 중점적으로 해소해야하는 분야여서 우리로서도 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이외에도 국방(軍)관련 기업의 생산능력을 산업화하여 민용제품을 생산하는 분야, 풍부한 한약재자원을 이용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시장판매와 제품화를 진행하는 분야, 수상-육상-항공 교통네트워크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과 무역활동이 날로 활발해지고 서부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의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물류 및 운송 서비스 분야 진출 기회가 늘고 있는 점, 기초시설건설과 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금융분야 등도 우리기업이 눈여겨 볼 분야임.

<환경보호분야>

도시오폐수 처리장(고농도 유기물 처리(가축분뇨) 등), 생활오폐수 미생물 처리 등), 쓰레기 처리(침출수처리, 소각로, 생활쓰레기 무해화처리), 중수이용, 공기오염(탈황 및 분진제거)분야. 관련 사업을 따내려면 현지의 주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 중수이용 기술, 생활오폐수처리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과 현지기업간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기전력 기자재 및 부품>

현지 경제개발에 따라 전력망 구축 및 개선, 공장건설에 따른 전력자재 수요가 많아지고 있음. 특히, 서전동송에 따른 변전소 설치, 전력망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장이 상당히 큰 상황임. 우리기업으로서는 L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의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고주파전원공급기, 누선배전용차단기, 송전선 등 부품류의 제품 진출 가능성이 높음. 일부 품목의 경우(고압스위치 분야) 우리의 기술이 공여되고 있음.

<전자재>

중국의 건축기조 정책으로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부 지역이 도시화(농촌의 도시화, 기존 도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설 기자재 내외장재 분야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환경보호성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건설중장비>

중국 투자진출 기업인 D,H 등의 중장비 시장 진출이 활발한 상황임. 서부 지역의 사회기초시설 공사가 향후로도 막대한 규모로 지속될 전망이어서 시장 전망이 밝은 상황임.

<농기계분야>

농업생산력 증대,특히 운남,사천의 화훼와 관련된 농기계 분야 (온실관련 기계)나 생물기술이 가미된 사료분야는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농산물 가공분야(1차원료의 프로세싱, 탈수건조, 신선도유지 등)의 기계 시장도 가능성이 높은 시장임.

<한류와 연계시킨 소비제품>

서부지역도 한류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잇는 지역임. 의류, 스포츠 용품, 문구용품. 현재는 한국산에 선호도가 있으나 대부분 직수입된 것이 아니고 동부지역을 통해 흘러 들어온 제품이 많음.

< IT제품>

서부지역 각 중심도시마다 IT, 전자전기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상황으로 관련 분야에 신규 기업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으며, 소비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동 분야의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우리 기업의 경우 교통관제시스템 분야, 전자부품 분야 등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통신설비>

중국서부지역은 각 도시를 중심으로 통신망 개선에 나서고 있어 중계기, 광케이블, 광섬유 등의 시장이 큰 상황으로 S, L 등 우리의 대기업들이 주로 시장에 진출한 상황임.

이외 환경보호위생의식이 강화되면서 교체 내지 신규 설치되는 배수관 수도관 및 관련 자재, 원재료 분야, 우리보다 과적 차량이 많아(비록 단속을 하고 있지만)쉽게 노후화 되는 도로분야의 보수설비, 늘어나는 고속도로망과

복잡해지는 시내 교통망을 관리하는 교통지능화관리 시스템 분야, 철강판재 분야(칼라강판, 도금강판 등), 급성장하는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 수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등이 유망 분야로 꼽힘.

나. 투자진출

서부 내륙시장은 지금부터 열리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진출방법론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현지에 위치한 무역관이나 주재상사, 외국기관의 공통적인 의견은 직수출이나 가공무역형 제조업 투자진출은 상당기간 한계가 있는 바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것임.

이렇게 보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긴 물류동선(우리나라와 주요거래가 이루어지는 천진 항구와 상해 항구로부터 성도까지 기차로 운송기간이 7일 소요됨. 화물트럭으로는 3-4일)에 따른 코스트와 적기 딜리버리 문제로 수출형 가공무역 제조업의 진출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임.

내수진출형 투자에 치중해야한다고 보는 까닭은 우선 서부대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정부가 내국민대우라는 틀 속에서도 외자기업에게 혜택을 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임.

둘째는 그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륙소비시장이 WTO가입으로 그 빗장이 풀리고 있으며, 셋째로는 내륙자체로도 방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내수를 겨냥한 투자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임.

넷째로는 현지 기업의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류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있다는 점임. 각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망의 정비나 하천운수의 정비 등은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예를 들면 서부물류의 중심지인 성도(成都)의 경우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이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주 1), 서부내륙과 남부지역 항구로 연결되는 도로망의 구축(성도-북해항까지

1500여 킬로미터의 도로망이 십수년의 공사 끝에 개통되었음), 서부철도망의 전기화를 통한 운행속도의 개선, 양자강을 통한 물류도 삼협댐 일기 공사가 완공되어 3,000톤급의 선박이 운항할 수 있게 되어 대폭 개선되었으며, 양자강 상류에 로주(瀘州),의빈(宜賓)등에 1,000톤 급 선박 정박이 가능한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고 있어 물류유통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있기 때문임.(주2)

주1)서부의 고속도로건설 및 고등급 공로 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특히, 사천, 섬서, 중경, 귀주 등 지역의 도로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사천성의 고속도로망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성도(成都)-중경(重慶) 구간: 340 km . 1995.9월 개통. 2003-4년 전체 수리보수 공사.

.성도-면양(綿陽)구간: 91 km, 1998.12월 개통

.면양-광원(廣元)구간: 135km, 2002.11월 개통

.내강(內江)-의빈(宜賓)구간: 107 km, 1999.12월 개통

.용창(隆昌)-납계(納溪)구간: 87 km, 2000.11월 개통

.성도-아안(雅安)구간: 145 km, 2000.12월 개통

.서창(西昌)위성발사기지 구간: 70 km 2000.12월 개통

.성도-락산(樂山)구간: 45 km, 2000.12월 개통

.광안(廣安)-린수(隣水)구간:45km 2000.12월 개통

.달주(達州)-중경 구간: 77 km, 2000.12월 개통

.성도시 순환고속도로: 85 km, 2001.12월 개통

.성도공항고속도로: 12km, 1999.7월 개통

.성도-도강언(都江堰) 구간: 41 km, 2000.7월 개통

.성도-남충(南充)구간: 215 km, 2002.12월 개통

.수녕(遂寧)-회마(回馬)구간: 22km, 2001.12월 개통

.남충-광안(廣安)구간:2003.7월 개통

.서창-반지화-곤명 고속도로:건설 중

주2)한-중간 근해를 운행하는 화물선은 보통 3,000톤급이어서 상해에서 환적이 필요없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와 중경에서 통관이 가능함. 또한 양자강 상류지역인 로주, 의빈에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됨으로써 내륙하운의 편리성이 상당 부분 제고되었음.

2.서부지역 진출 전략

우선 기업들의 관심도 면에서 보면, 서부대개발에 대한 우리기업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잡히는 자료나 정보의 부족으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은 편임. 특히 단기적인 경영전략위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부지역이 결과치를 만드는데 상당

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로 뛰어들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를 방문한 기업들의 견해임.

결국 우리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에서 서부지역 진출을 치고 빠지는 식의 단기적인 공략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출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가. 사회간접자본 분야

○기업간 연합전선 구축 참여

우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참여가 바람직 할 것임. 실제 이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참여가 쉬운 상황이 아니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어 여러 기업이 연합하여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임. 기본적으로 중국정부는 부족한 운송망(도로, 철도, 내륙항만, 공항), 발전설비 건설, 오폐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 외국의 자본을 유입 개발하는 전략(BOT방식 선호)을 구사하고 있어 더욱 그러함. 또한 가능한 경우는 외국 주요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정부의 전략적 참여를 통한 대업계 지원

정부의 전략적 차관지원을 통한 대업계 진출 지원이 필요함.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재원을 투입하여 서부지역에서 상징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진출에 대한 장기적·간접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통신, 전력, 사회기초시설 분야)

또한 가능한 외교력을 동원하여 중국 중앙정부 및 관련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망을 구축하여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조기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진출 지원 필요.

주)현재 각 성별로 제11차 경제개발계획(2006-2010) 서부 대개발 중점 프로젝트를 산하 지방정부(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임고. 예를 들면 섬서성의 경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미 353개 프로젝트(서부대개발항목)를 신청받아 정리한 바 있는데, 그 규모는 4,876억 위엔에 이르고 있음.

나.자원개발 분야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및 원자재 확보를 위한 관점에서 서부시장에 접근 할 필요가 있음. 간단히 살펴보면 중국의 서부는 자원의 보고임.(물론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중요하나 물류의 개선으로 그러한 약점이 많이 개선되고 있음)

*각종 에너지 원 및 여타 지역의 광물자원(니켈,백금 등)등에 대해 중국 측과의 공동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선 확보 및 원자재 공급선 확보→산업경쟁력 확보 및 강화

*서부지역에는 각종 에너지자원,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수자원은 전국의 82.3%가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자원도 풍부하여 동 분야 협력도 가능.

*석유매장량: 5.1 억톤 (전국의 23 %), 석탄:3000톤 (전국의 30%), 천연가스:4354억 m³(전국의 58%),니켈,백금:전국의 62%,57% 등

다.환경산업 및 생태환경 분야

개발초기부터 생태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국의 서부개발전략과 향후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파생되는 환경보호 분야 수요를 예상하여 오펜수처리, 소각로 등 우리기업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보호산업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이 관련 지역의 실력있는 시공설계기업 내지 설비생산 기업들과 연합하여 시장진출(기술이전, 공동생산, 시장개척)을 꾀해야 할 것임.

주) KOTRA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관련 분야에 대해 청두(成都)한국무역관을 중심으로 서부지역 환경보호산업 진출 방안을 찾기 위해 서부의 각성(사천성, 중경시, 섬서성, 운남성, 귀주성, 청해성, 감숙성,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중국업체들을 현장 방문 협력 가능 분야를 타진한 바 있음. 관련 자료는 책자(중국서부지역:중국의 환경보호산업 2001.12월 KOTRA, 사천,섬서,중경,운남 편) 및 인터넷망(www.kotra.china.org, 2003.1.10 6회연재(귀주 편), 2003.12.18-2004.1.29 간 25회에 걸쳐 신강, 감숙, 청해 편 연재)에 게재한 바 있음. 동 자료에 수록된 진출 방안을 참고로 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현지기업과 합자합작

-관련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기술이나 설비 판매가 이루어지고 현지 환경보호관련 기관

및 계획위원회 등과의 관계망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현지의 공정 경험이 있거나 현지에서 실시하는 공정입찰을 따낸 경험이 있는 기업들과 연합이 필요함. 또한 중국기업들의 빠른 기술개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여서 아직 시장진입 여건이 비교적 유리할 때 들어가 실력있는 협력 파트너를 잡는 것이 중요함.

1) 보편적인 방식

▶ 중국측은 원래 보유하고 있는 공장 및 판매망 제공 (관계망)

한국측의 기술(설비) 및 자금 제공

.중국측이 노리는 효과:관련 회사의 제품 지명도 제고 및 판매확대

▶ 유동자금 제공 방식의 합자 (지분참여 방식)

2) 연구개발중심(研发中心:시장개척+기술연구도입)

외국업체가 선진적 기술 또는 제품, 관리방식 등을 중국측에 제공하고 동사는 자체의 판매망과 현재 보유한 기술을 외국의 선진적 기술과 결합하여 제품생산 및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외국업체가 직접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아도 가능한 방식임. 표면상으로는 연구기관 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제품판매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물론 연구개발 중심의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예를 들면 외국의 선진적 제품이 중국 진출 시 핵심적인 부속품과 부품은 수입하고 기타의 제품은 중국기업이 현지실정에 맞게 설계 및 생산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도 연발중심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임.

3) BOT공동 참여

오폐수처리장 등 대규모 공사에서 BOT경험이 있는 중국기업과의 협력(또는 합작)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오폐수 처리장을 BOT방식으로 수주하는 중국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이들은 적합한 국외 파트너를 찾고있어 이들 기업과의 연합은 설비수출, 기술수출, 공동경영 등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기술협력 또는 기술판매

-중국시장에서 기술판매(협력)는 상당한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음. 그러나 일부 환경보호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정부나 기업들이 설비자체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기술도입 내지 합작이 시장진출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물론 현지기업이나 기관의 말이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은 우리와 달리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강한 국가로 정부가 방향을 정하면 그대로 그것을 쫓아가는 상황이어서 현지 업체나 기관들이 '대형설비를 도입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말을 유의해야 할 것임. 중국에서도 이제는 꽤 많은 규모의 기업들의 경우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기업도 주목해야 할 것임.

▶▶ 정부차관 공여와 연계된 기업진출

-전체적인 국력의 차이와 경제규모의 차이로 우리가 실현하기에는 늘 벅차게 느껴지는 것이 차관공여를 통한 시장진출임. 물론 우리정부도 이 분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천성 면양 공항 등이 그 좋은 예) 보다 이 분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현실적으로 서남부지역 시장을 유럽국가(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나 일본이 장악하다 시피하고 있는 것은 뛰어난 기술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부의 적절한 차관공여와 이를 통한 관련 설비의 진출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실제로 중국의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술이 반드시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정부차관공여와 함께 묻어 들어와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분야 투자확대 활용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양대 축으로 생태환경보호를 내세우고 있음. 현실적으로도 삼협댐 건설에 따른 양자강 유역의 오염처리 문제, 도시확대에 따른 오폐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의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 환경보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할 예정임. 우리기업으로서도 현지 기업들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국책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참여를 늘려가야 할 것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차관공여 활용

-중국의 서부지역에 심심치 않게 세계은행 차관이 공여되고 있음. 아직은 유럽기업들이 대부분 이 과실을 따먹고 있지만 우리기업도 이러한 분야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동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자금회수 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진출에 따른 리스크도 적어 우리정부와 우리기업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임.

▶▶한국환경보호기술 및 설비 전시회 개최(또는 참여)

▶▶환경보호산업 분야 시장개척단 활동 증가

-현지 기업들이나 관리들은 사실상 한국 기술과 제품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임.. 현지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기업들 기술과 제품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환경보호 분야의 기술과 설비를 주제로 한 단독 전시회 개최나 청두 등지에서 매년 열리는 서부박람회 등에 환경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지라도 시장개척단을 관련 도시에 파견하여 우리제품의 판매(홍보) 및 합작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활동이 보다 증가 되어야 할 것임.

▶▶적정 대리상 물색을 통한 기술력있는 소형설비 제품 판매

-대형설비는 어렵지만 기술력이 있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소형설비의 경우는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일부 환보제품 생산기업의 경우는 환경설비 분야의 좋은 제품이 있으면 현지 대리를 하겠다는 업체도 있음. 이러한 업체들의 기존 사업 확대 희망과 우리의 제품진출 노력을 결부시키면 소형설비 분야에서 시장개척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BOT방식 진출

현실적으로 BOT 추진에는 지방정부의 수익성 보장 불확실, 국민들의 오수처리 비용개념 부재 등 난제가 많아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현지기업의 일치된 의견이지만 중국도 환경보호

산업 분야 공정에서는 대세가 BOT 방식으로 가고 있으며, 팬썬은 수익모델이 되고 있는 사업들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의 진출도 감안해야 할 것임. 이미 몇몇 외국 기업들은 중국지방정부와 협력 하에 이러한 방식으로 쓰레기 소각로 공사 등을 하고 있는 상황임.

라.농업, 목축업 및 임업(장강 및 황하 중상류 지역) 분야 협력→ 관련 분야 개발과 연계된 장기적인 농기계 수출, 관련 기업경영, 내륙 소비시장 개척 등. 특색작물의 재배. 고랭지 공동 재배, 가로수나 정원목 재배 사업 등 협력 가능.

마. 지역 특성에 맞는 제조업 투자 진출

각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업체별 진출전략 수립도 검토해야할 시점임.. 간단히 살펴보아도 지역별로 상당한 특성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열대, 아열대 생물자원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운남(雲南)성(농작물 관리, 가공 분야 투자)
-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공공업 기지와 농업기지(약재류,버섯류 등), 서부의 첨단기술, 생물의약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천(四川)성
- .항공 우주산업 등 하이테크 산업의 비교우위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산시(陝西)성(시안)
- .중서부 중공업 중심지이며 삼협댐 건설로 중요성이 배가된 중경(重慶)시
- .니켈, 백금 등 비철금속 자원이 풍부한 감숙(甘肅)성
- .타림분지의 유전·천연가스, 면화, 양털 등이 풍부한 신강(新疆)자치구 등

바. 중앙아시아·동남아 진출 거점으로 활용→신 실크로드 활용

서부지역은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인접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무역거래도 중국내륙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여건을 활용 인근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동 지역(과 기업)을 활용하는 것 가능함.

주1)신강의 경우 대외 무역의 70%가 동 지역과 이루어지고 있음.

주2)신강을 비롯 인근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변경무역이 발한 상황으로 육지세관(口岸)이 상당수 설치되어 있음.

거대한 중국서부시장 개척과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서부지역 진출은 현실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서남부에 위치한 운남성은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지역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고있어 우리기업의 동 지역 연계진출에 유리점을 안고 있음.

[별첨]서부 각 성시자치구와의 주요 교역 품목

(1-1)사천의 대한수입

(단위:미\$천,%)

품목코드	구분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44,571	48.8	134,149	9.1
291736	테레프탈 산과 그염	16,983	258	35,193	180.1
854011	C/TV용 음극선관	57,176	11.2	15,190	-73.4
854221	디지털(칩,기억소자)	5,294	49.7	13,012	459.6
852290	부품(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용)	19,367	166,798.7	9,490	-30.3
901380	액정디바이스	6,392	344.6	7,927	41.5
854229	칩,다이소,비절단웨이퍼	3,233	-34.9	4,396	65
840690	증기터빈부품	410	-	3,827	-
390330	ABS	2,554	250.8	2,480	22
290313	클로로포름	0	-	2,385	-
847989	기타기기(공기청정기,반도체제조용기기 등)	848	156.8	2,335	175.5

(1-2) 사천 대한수출

(단위:미\$천,%)

품목코드	구분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86,480	51.3	136,163	-1.9
760110	알루미늄(비합금)	40,438	337.4	24,825	3.4
500720	건축물	22,809	14.4	20,785	12.4
720230	페로실리코망간	8,906	-30.2	11,745	52.2
283525	인산이칼슘	8,653	12	6,578	-7.7
54033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5,094	104.3	4,585	19.2
283311	황산이나트륨	4,719	-3.3	4,463	17.9
291619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등	2,211	-	3,686	175.1
310210	요소	7,500	-	3,234	-44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유리제 광학용품	3,188	130.7	3,075	20.4
280469	규소(실리콘)	4,679	452.6	2,134	-42.8

(2-1) 중경의 대한국수입

(단위:미\$천,%)

품목코드	구분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7,058	55.2	43,252	26.5
760691	알루미늄판,쉬트(비합금)	0	-	9,120	-
720917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7,561	295	8,256	29.3
381512	서포트된 촉매	5,027	1,043.1	4,779	55.6
271320	석유아스팔트	17,978	421.7	3,872	-68.9
842952	엑스카베이터	0	-	3,376	-
845710	머시닝센터	1,873	1,200.7	1,228	-34.4
870880	서스펜션 쇼크 업소버(충격흡수)	187	-	1,107	8,778.30
847989	기타기기(공기청정기,반도체제조용 기기 등)	270	-55.8	1,012	274.8
853224	축전기(세라믹유전체의 것)	1,256	62.9	954	-3.5
842951	프론트 엔드 셔블로워더	0	-	904	-

(2-2) 중경의 대한국수출

(단위:미\$천,%)

품목코드	구분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195	3.4	71,630	32.6
720712	철 또는 비합금강 반제품	0	-	10,474	-
*050510	습털 및 충전재용 깃털	4,032	-24.8	9,647	195
790111	아연의 괴(비합금)	14,580	12.8	5,916	-51.8
283692	탄산스트론튬	6,047	-46.4	4,612	-2.6
760692	알루미늄의 판,쉬트 (합금)	4,267	74.1	4,358	21.1
720310	철제품(철광석 직접 환원 제조)	0	-	4,307	-
531100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4,091	-22.5	4,221	14.4
811100	망간과 그제품	2,509	206.8	3,479	128.6
760110	알루미늄(비합금)	8,853	101.5	3,290	-51.9
240120	잎담배	0	-	2,703	-

(3-1) 섬서성의 대한수입현황

(단위:미\$천,%)

품목코드	구분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8,880	5.7	40,207	68.5
271320	석유아스팔트	582	-	10,343	1,675.9
854710	도자제 절연용 물품(전기기기)	953	-	2,534	359.5
721913	스테인레스강의 평판압연제품	1,036	1,228.6	2,173	192.7
720917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459	170	1,957	534.7
845730	트랜스퍼 머시인(멀티스테이션용)	1,741	-	1,799	10.7
721050	평판압연제품(크롬,산화크롬 도포)	300	-	1,684	-
720836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0	-	1,590	-
847989	기타(가정형기기,반도체제조용 기기등)	19	-93.7	1,515	7,786.2
721069	평판압연제품(알루미늄 도금,도포)	44	-	1,180	2,605.1
721633	H형강(철 또는 비합금강)	371	-	1,180	218

(3-2)섬서성의 대한수출

(단위:미\$천,%)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91,907	-10.4	265,720	73.7
270112	유연탄	117,288	-11.5	188,221	99.8
261310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12,210	49.1	25,306	156
520811	면직물(평직)	5,813	50.5	7,453	105.5
854091	부분품(음극선관의 것)	1,838	-37.6	4,809	263.7
7207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탄소>0.25/100)	0	-	4,342	-
760110	알루미늄의괴(비합금)	3,120	-	3,039	263.8
520812	면직물(평직)	8,683	-34.9	2,952	-55.5
551311	직물(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 섬유의 것)	3,433	-64.5	2,772	-5.5
280469	규소(실리콘)	3,319	6.4	2,525	-9.2
790111	아연의 괴	13,942	-11	1,761	-85.9

(4-1)운남성의 대 한국수입

(단위:미\$천,%)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3,476	116	20,056	377.7
271019	휘발유 등 정제유	0	-	7,914	-
390210	폴리프로필렌	0	-	2,307	709,592.30
390190	폴리에틸렌	681	-	1,357	320.2
390120	HDPE	22	154.3	1,238	5,448.10
292910	이소시아네이트(질소관능화물)	0	-	909	-
390110	LDPE	192	-89.9	871	-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	234	-	693	269.4
852990	부품(레이다기기, 무선기기 등)	824	19,200.5	631	288.9
760611	알루미늄의 판,쉬트(비합금)	2,676	2,162.9	625	-55.5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0	-	467	-

(4-2)운남성의 대 한국수출

(단위:미\$천,%)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0,838	-11.0	35,250	12.0
441820	문,문틀 및 문지방	12,594	-23.1	9,298	-13.2
280470	인	4,286	38.5	5,721	103.3
7213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0	-	3,448	-
2927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	2,274	-16.1	2,681	65.2
240120	잎담배	4,713	n.a.	2,621	-7.2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1,127	38.2	1,455	110.9
720299	인철	683	94.2	1,047	61.5
440710	침엽수류	2,364	-6.7	988	-52.7
240220	권련	1,629	-48.3	874	-29.7
780110	연(鉛)의 괴(정제)	1,196	14.7	612	-13.5

(5-1)내몽고의 대 한국수입

(단위:미\$천,%)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495	45.6	26,908	449.7
760110	알루미늄의 괴(비합금)	0	-	18,084	-
844140	모울딩용기계(제지용 펄프,지, 판지제품용)	0	-	1,202	-
845530	압연기기용의 롤	828	-	979	18.2
870829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34	1,979.4	783	2,198.3
846694	부품(8462,8463호 기계용)	570	-	758	32.9
293371	에프시론-카프로락탐	0	-	508	-
940120	차량용의 의자	0	-	446	-
260700	연(鉛)광과 그 정광	0	-	422	-
550320	폴리에스테르스테이플파이버	425	83	398	19.7
870899	자동차부품류	231	4,777.0	394	70.6
870894	핸들,운전대 및 운전박스	0	-	352	-

(5-2)내몽고의 대한국수출

(단위:미\$천,%)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07,173	70.5	290,322	-14.1
270112	유연탄	189,245	146.1	115,387	-26.7
760110	알루미늄(비합금)	33,333	46.4	43,644	60.2
100590	옥수수(사료용)	86,594	24	28,487	-63
760120	알루미늄합금	30,655	26.8	26,889	28.4
720827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0	-	14,955	-
720837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10,033	498.6	13,408	43.8
720221	페로실리콘	4,776	-2.7	6,644	58.5
721399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9,697	208.9	6,348	-24.8
720839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0	-	3,766	-
680223	화강암	1,923	295.6	2,693	114.5

(6-1)광석장족자치구의 대한수입

(단위:미\$천,%)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4,014	36.8	70,331	129.1
870321	자동차(실린더용량 1000 CC 이하)	4,298	-	35,198	4,464.5
260700	연(鉛)광과 그 정광	0	-	7,076	-
846880	납땜용 또는 용접용 기기	0	-	4,372	-
840820	엔진(87류 차량 추진용)	5,222	-3.4	3,363	-24.3
820730	프레싱,스태핑 또는 편칭용의 공구	0	-	2,837	-
490810	전사지(유리화할 수 있는 것)	3,534	141.2	2,404	-19.8
870899	자동차부품	4,514	-4.9	1,836	-51.6
390320	스티렌-아크릴로 니트릴 공중합체(SAN)	1,564	30.2	962	-26.6
841590	에어컨부품	968	-26.2	931	51.5
841221	액압파워엔진	7	-	757	-

(6-2)광석장족자치구의 대한국수출

(단위:미\$천,%)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1,217	34.5	79,567	80.2
720211	페로망간	5,736	640.2	16,562	272.7
282580	산화안티몬	4,956	20,027.0	7,002	160.8
811010	안티모니의 괴,분	7,276	379.6	5,644	19.4
7213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0	-	3,631	-
811292	웨이트와 스크랩	0	-	3,578	-
380610	로진	2,981	15.6	3,467	67
280469	규소(실리콘)	1,394	-41.6	3,099	259.3
720230	페로실리코망간	6,458	287.4	2,795	-56.7
282300	산화티타늄	3,042	310.4	2,580	3
720292	페로바나듐	1,082	9	2,214	173.5

(7-1)귀주성의 대 한국수입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7,832	-57.6	14,922	-40.8
731210	철강제의 연선,로프,케이블	7,306	14.0	7,331	23.4
721913	평판압연제품(스테인레스강)	459	-	2,028	-
280700	황산과 발연 황산	2,065	417.1	1,400	-22.2
842139	원심분리기(유해성배기가스배출등)	0	-	1,138	-
271320	석유아스팔트	0	-	612	-
847989	기타기기(공기청정기,반도체제조용기기 등)	0	-	466	-
852990	부품(레이다기기용,무선기기용 등)	938	325.8	430	-48.5
854441	전선(접속자 부착된 것)	0	-	230	-
721730	선(동을 도금 또는 도포한 것,기타)	102	49.5	204	-
845811	금속절삭가공용선반	0	-	155	-

(7-2)귀주성의 대 한국수출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7,652	16.3	72,242	46.7
251010	천연인산칼슘,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미분쇄)	19,251	53.4	19,032	19.0
720230	페르로실리코망간	8,819	-44	14,170	60.7
811100	망간과 그 제품	613	78.7	7,610	2,593.7
283660	탄산바륨	6,247	12.9	5,289	11.2
240120	잎담배	238	-	4,354	-
720211	페로올로이	234	-73.5	4,094	1,649.6
151540	동유와 그 분획물	4,331	144.5	3,054	-26.8
310390	인산비료(석회)	1,650	7.5	1,841	51
310530	인산이암모늄	555	-47.3	1,694	205.2
841590	부품(에어컨용)	434	1,383.3	1,568	491.9

(8-1)신강자치구의 대 한국수입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6,200	560.5	19,351	79.2
291736	테레프탈산과 염	0	-	7,331	-
390120	HDPE	1,933	107.4	3,667	330.8
390190	에틸렌의 중합체	3,804	-	2,666	13.4
847720	압출기(고무,플라스틱)	1,908	-	2,110	10.6
842952	엑스카베이터	2,835	-	753	-73.4
390110	LDPE	592	518.3	625	429.7
901812	초음파영상진단기	221	-	568	315.1
721050	평판압연제품(크롬 또는 산화크롬 도금 도포)	0	-	313	-
390210	폴리프로필렌	0	-	266	-
291735	무스프탈산	0	-	233	-

(8-2)신강자치구의 대 한국수출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7,212	-39.8	17,542	-29.7
200290	토마토페이스트	3,666	-20.1	4,687	78.4
230320	비트펄프,버개스 기타 설탕제조시 생기는 웨이스트	235	-68.9	3,228	-
283311	황산이나트륨	2,286	-32.2	1,526	-28.5
720221	페르로실리콘	300	-	1,230	310
310210	요소	0	-	1,181	-
253010	질석,진주암과 논니석	1,224	43.4	1,134	15.1
520100	면	15,945	-48.4	1,041	-93.5
*050790	귀갑과 귀판,녹각,천산갑 등	444	-	737	163.7
291412	부탄온	0	-	716	-
790111	아연의 괴	0	-	361	-

(9-1)청해성의 대 한국수입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08	-44.1	1,434	1,685.00
721050	평판압연제품(산화크롬 도금 도포한것)	0	-	1,411	-
391510	웨이스트(에틸렌중합체의 것)	0	-	23	-
720421	웨이스트,스크랩(스테인레스강)	107	-	0	-
830810	비금속제 후크,아이 및 아이렛	1	-	0	-

(9-2)청해성의 대 한국수출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6,543	70.6	79,363	148.0
760110	알루미늄괴(비합금)	53,816	127.8	66,512	157.5
720221	페로실리콘	4,217	-14.6	7,437	183
780110	연(鉛)의괴(정제한 것)	0	-	2,530	-
790111	아연의 괴	5,355	711.4	1,370	-2.5
280469	규소(실리콘)	822	72.5	867	43
510539	섬수모	202	-	115	-43.1
720241	페로크로뮴	0	-	91	-
284920	탄화규소	171	-2.9	87	-40.1
811100	망간과 그제품	0	-	82	-
*030379	어류(냉동)	906	348.7	69	-86.0

(10-1)감속성의 대한국수입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2,805	222.9	2,890	-71.7
847780	기타 기계(고무나 플라스틱 가공)	277	218.7	657	229.5
845530	압연기용의 로울	490	-	365	-25.6
847720	압출기(고무,플라스틱 가공)	3,363	686.6	345	-88.2
847740	진공성형기 기타의 열성형기	158	-	269	-
390120	HDPE	303	-60.4	215	-4.5
846420	연마기와 광택기	0	-	196	-
903180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비계기된것)	43	-	193	-
841950	열교환기(항공기용 및 기타용)	0	-	110	-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0	-	103	-
854221	디지털(칩, 기억소자)	25	11.6	94	-

(10-2)감속성의 대한국수출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20,473	206.3	158,687	18.6
760110	알루미늄(비합금)	163,519	314.8	81,517	-10.5
720221	페로실리콘	22,596	58.7	31,362	93.3
721391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16,228	-	22,443	60.1
721399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	4,278	-	3,821	4.4
854511	전극(노용)	351	255.5	2,905	3,319.4
720851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0	-	2,437	-
780110	연의 괴(정제한 것)	1,373	521.4	2,011	-
720827	평판압연제품(철 또는 비합금강)	0	-	1,866	-
790111	아연의 괴(비합금)	3,622	24	1,674	-13.2
310210	요소	0	-	1,293	-

(11-1)서장자치구의 대한국수입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25	-76.4	549	29.2
842952	엑스카베이터	143	-69.9	549	283.1
851220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기구	5	-	0	-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와제 무기	1	-	0	-
870323	승용차(배기량1500-3000cc)	104	-71.1	0	-
870324	승용차(배기량3000cc이상)	54	-93.2	0	-
870829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75	-	0	-
870831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4	-	0	-
87086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9	-	0	-
870891	방열기	1	-	0	-
870892	소음기와 배기관	3	-	0	-

(11-2)서장자치구의 대 한국수출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4	105.9	324	274.6
611430	의류(인조섬유제)	28	-	147	-
441199	섬유판	20	-	111	457.3
620462	면제바지	0	-	35	-
620432	면제 자켓 및 브레지어	0	-	24	-
690790	도자제 판석,모자이크 큐브	0	-	7	-
610453	합섬 스커트와 치마바지	21	-	0	-
610520	인조섬유제 남성셔츠	37	-	0	-
620193	인조섬유제 남성용 오버코트	3	-88.2	0	-
732393	스테인레스강 식탁용품,주방용품 등	6	-	0	-

(12-1)영하회족자치구의 대 한국수입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87	-5.7	2,057	201.2
843930	지 또는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0	-	1,041	-
841932	건조기(목재,제지용 펄프,지)	0	-	442	-
731210	연선,로우프 및 케이블(철강제)	378	1,228.3	158	-58.3
843999	부품(지 또는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등의 기계용)	0	-	112	-
401110	고무제 공기타이어(승용차용)	0	-	105	-
847149	디지탈형처리장치	0	-	61	-
844190	부품(지 또는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등의 기계용)	0	-	37	-
842099	부품(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로울기용)	0	-	17	-
392329	새과 백(플라스틱제)	0	-	15	-
870323	승용차(1500-3000cc)	0	-	15	-

(12-2)영하회족자치구의 대 한국수출

(단위:미\$천, %)

품목코드	품목	2003		2004(1월~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84,242	101.2	72,371	26.6
720221	페로실리콘	21,735	151.3	33,764	149.3
760110	알루미늄의 괴	41,584	127.9	16,692	-36.8
382490	조제점결제(비게기된 것)	3,619	203	4,974	85.3
810411	마그네슘과 그 제품	965	82.5	1,886	299.6
790111	아연의 괴	2,456	-2	1,714	-25.8
284920	탄화규소	1,629	21.5	1,686	16.4
846693	부품(8456호,8461호기계)	911	52.8	1,555	111.9
810320	탄탈륨과 그 제품(괴,분)	2,331	-22.6	1,419	-26.3
780110	연(鉛)의 괴(정제)	1,885	-	1,353	-28.2
720299	페로알로이(비게기된 것)	10	-82.3	1,222	12,020.1

중국 서부대개발 현황 과 우리의 진출방안

2004.12

KOTRA